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

2018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

“기록으로 복기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8시즌의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총괄보고서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합니다.

K리그가 1년간 남긴 기록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난 1년을 복기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K리그가 남긴 다양한 기록과 데이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 보면 치열했던 승부와 멋진 득점, 화려한 플레이들이 머릿속에 다시금 떠오르곤 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18시즌 K리그1과 K리그2 정규라운드, 총 408경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축구는 주도권싸움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특히 그런 흐름을 반영해 ‘시퀀스’, ‘포제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인 볼 소유의 개념을 다룬 ‘포제션’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격작업의 한 덩어리 ‘시퀀스’는 경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감독들의 치밀한 지략대결을 데이터 분석으로 복기해 K리그의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2018년 K리그를 추억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K리그를 사랑해 주신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K LEAGUE

01 2018 SEASON REVIEW

- 압도적인 전복, 조기 우승의 힘은? | 8
- 경남 돌풍, 하반기가 가른 성적표 | 10
- 살아남기 위한 전쟁, 올라가기 위한 전쟁 | 11
- K리그 미래를 보다 | 12

02 TECHNICAL TOPICS

- 특정 패턴을 보면 팀 스타일이 보인다 | 14
- 코너킥을 해부하다 | 17
-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2018 K리그 | 18
- 포메이션: 팀 철학을 반영하다 | 20
- xG, 시퀀스, 포제션: 신개념 분석 용어 | 23
- K리그 점유율 한눈 보기 | 26

03 MEN IN NUMBERS

- ATTACKING: 공격에 방점 찍기 | 28
- PLAYMAKING: 효율적으로 경기 풀기 | 30
- HARDWORKING: 투쟁심으로 활력 불어넣기 | 32
- DEFENDING: 위기에서 벗어나기 | 34
- GOALKEEPING: 승점 지키기 | 36
- TEAM OF THE YEAR: K리그1 | 38
- TEAM OF THE YEAR: K리그2 | 40

04 TEAM PROFILES

- K리그1 | 42
- K리그2 | 54

데이터 항목 정의

패스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는 행위	태클 볼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통해 볼을 떼어놓는 것	시퀀스 상대 방해를 받지 않고 공을 소유한 플레이(p.23)
키패스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득점 기회 창출 요소	소유권 회복 루즈볼을 획득해 소유권을 가져온 플레이	포제션 상대 방해 이후에도 소유권이 유지되는 상황. 하나의 포제션은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시퀀스로 구성됨(p.23)
전진패스 상대 진영을 향한 패스	공격 1/3지역 그라운드를 가로로 삼등분 했을 때 상대 골문 쪽에 해당하는 범위	득점 포제션 득점 안상까지 볼 관여도를 터치로 계수함
득점 기회 창출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 도움 기록도 키패스에 해당함	중원 1/3지역 그라운드를 가로로 삼등분 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범위	슈팅 포제션 슈팅까지 볼 관여도를 터치로 계수함
공중볼 결합 공중에 뜬 공을 두고 양 팀 선수가 공중에서 경쟁하는 플레이	수비 1/3지역 그라운드를 가로로 삼등분 했을 때 자기팀 진영에 해당하는 범위	PPDA Passes Per Defensive Actions, 수비행위(태클, 소유권 회복, 가로채기 등) 1회당 패스 허용 횟수
공격형 결합 상대팀 공격 지역에서 상대방과 결합하는 플레이	예상득점(xG)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계산한 값(p.23)	
수비형 결합 자기팀 수비 지역에서 상대방과 결합하는 플레이	득점률 슈팅 시도가 골로 성공한 경우를 백분율로 환산	
인터셉트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 볼 소유권을 획득하는 플레이		

2018 SEASON REVIEW

2018시즌 K리그 우승 경쟁에는 이변이 없었다. K리그1에서는 전복이 2연패에 성공했고 K리그2에서는 아산이 우승했다. 두 팀 모두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했다. 두 팀은 스쿼드로 탄력적인 운영을 펼치며 시즌 내내 경쟁팀들을 압도했다. 반면 잔류와 생존 싸움은 치열했다. 전남이 창단 후 처음으로 강등의 수모를 겪었다. 긴 부진 끝에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내몰린 서울은 승격을 노리는 부산과 혈전을 치렀다.

2018 K리그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86	26	8	4	75	31
2	경남	65	18	11	9	61	46
3	울산	63	17	12	9	61	46
4	포항	54	15	9	14	48	49
5	제주	54	14	12	12	42	42
6	수원	50	13	11	14	53	54
7	대구	50	14	8	16	47	56
8	강원	46	12	10	16	56	60
9	인천	42	10	12	16	55	69
10	상주	40	10	10	18	40	48
11	서울	40	9	13	16	40	48
12	전남	32	8	8	22	43	69

2018 K리그2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아산	72	21	9	6	54	27
2	성남	65	18	11	7	49	36
3	부산	56	14	14	8	56	35
4	대전	53	15	8	13	48	47
5	광주	48	11	15	10	51	42
6	안양	44	12	8	16	44	50
7	수원FC	42	13	3	20	29	46
8	부천	39	11	6	19	37	50
9	안산	39	10	9	17	32	45
10	서울E	37	10	7	19	30	52



오차 없는 조기 우승, 전북의 힘은 어디서 오나

2018시즌 우승팀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전북이 K리그1 2연패에 성공했다. 시즌 6경기를 남겨두고 우승을 확정했다. 2013년 승강제 실시 이래 스플릿 전에 선두 자리를 굳힌 팀은 전북이 처음이다.

전북의 우승을 두고 '전력의 우승'이라고 해석하기 쉽다. 일견 맞는 말이다. 전 포지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때문이다. 평균 이상의 전술 이행력을 기대할 수 있다. 두터운 스쿼드를 활용한 로테이션 시스템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그렇지만 좋은 선수단을 꾸리는 것만으로는 우승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어렵다. 목적의식, 전략, 전술이 분명해야 한다. 이 모든 영역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팀이 전북이다.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전북의 힘

기록으로 확인하는 전북의 힘은 압도적이다. 단순하게 봐도 최다 득점-최소 실점을 유지한 군 형이 돋보인다. K리그 경기위원회는 리포트를 통해 "공격적인 측면 못지 않게 백포(back4)라인의 안정감이 전북의 큰 장점"이라고 짚었다. 득실차가 44다. 이 항목에서 40대 숫자가 나온 건 36년 K리그 역사상 처음이다. 경기당 득점은 1.97골. 1골을 넣는 데 평균 45.6분이 걸렸다. 득점 루트도 다양했다. 오픈플레이(49)와 세트플레이(18) 모두 타 팀 대비 우위의 결정력을 자랑했다. 특히 골문에 가까워질수록 더 위협적인 팀이었다. 김신욱, 이동국이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존재하고,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군도 다수 포진한 덕이다. 공격 1/3지역으로 진입하는 패스가 2773(경기당 평균 72.9)회 나왔고, 이 지역에서 패스를 시도한 횟수는 4222(경기당 평균 111.1)였다. 공격 연계작업을 시작하는 지점은 평균 49.2m였다. 역시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라인의 위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상당



히 강한 압박(전진) 혹은 볼을 탈취해 공격으로 이어가는 팀 스타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은 인터셉트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12.9회 볼을 가로챘다. 이런 적극성은 수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비 1회당 패스를 얼마나 허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 PPDA(Passes per Defensive Actions)다. 전북은 10.8로 리그 1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패스를 허용한 경남(14.96)과 비교하면, 전북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강한 압박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골문까지 지키는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 유효슈팅을 허용한 횟수(152)가 리그 내에서 가장 적었다. 유효슈팅을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은 인천으로 191회에 이른다. 2018년 전북이 신예 송범근을 주전 골키퍼로 세우고도 안정감을 자랑했던 이유가 여기에 숨어있다.

조기우승 비결은?

전북은 정규리그 32경기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최강희 감독은 그 비결에 대해 "비밀 경기를 이겼다. 4~5경기에서 승점을 더 버는 경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승점 관리에 뛰어났다. 승점 관리는 지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무승부보다는 한 번 지더라도 다시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무승부 3번이 1승과 맞먹는다. 무승부는 상대와 승점을 나눠 갖는



승강제 이후 전북 승무패 현황

시즌	승	무	패	승점
2013	18	9	11	63
2014	24	9	5	81
2015	22	7	9	73
2016	20	16	2	67
2017	22	9	7	75
2018	26	8	4	86

게임이다. 특히 승점 경쟁팀과의 무승부는 소 득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전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전북은 지지 않는 팀에 가까웠다. 패배가 두 번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승부(16경기)가 너무 많았다. 결국 눈앞에서 우승 타이틀을 놓쳤다. 당시 우승팀 서울의 전적은 21승7무10패. 패배 숫자가 전북보다 다섯 배나 많았지만, 무승부가 적었다. 그 덕에 최종전을 앞두고 전북과 같은 승점(67)을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전 맞대결에서 승리를 챙기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당시 패인을 잊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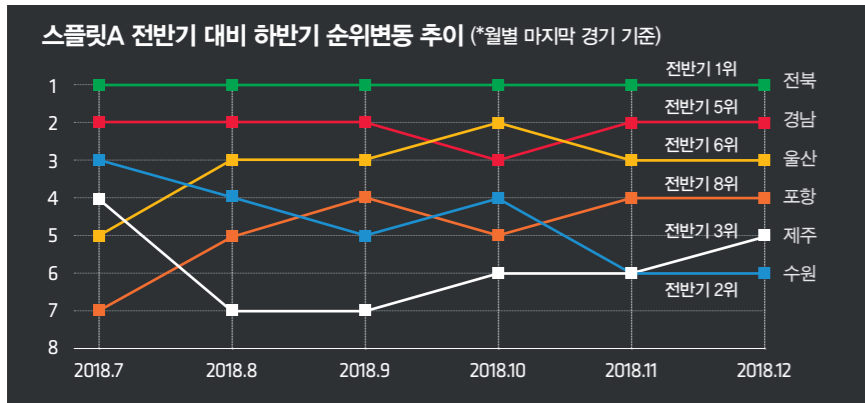
은 최강희 감독은 패배와 무승부 숫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7년 패배가 늘어났지만 무승부는 눈에 띄게 줄었다. 2018년에는 무승부와 패전 숫자 모두 감소했다. 이 대목에서 최강희 감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다. 이른바 암묵지(暗黙知)다. 부정적 변수들을 꾸준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팀을 관리해왔다. 선수 운영에서부터 기록, 전략 같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뤘다. 관련된 일화 하나. 2013년 하반기, 대표팀 외유를 마치고 돌아온 그가 2014년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건 실점을 최소화하는 일이었다. '다공'을 표방하던 전북은 2014년 22실점(38경기)의 잔물 수비로 우승했다. 당시 그는 "우승이나 성적을 내기 위해선 수비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며 "전년 40점대 실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최강희 감독의 장수 비결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다.

기록으로 보는 국제 경쟁력

울산의 한승규는 "전북을 상대할 때면 다른 리그에서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 적 있다. 선수 개인의 기술과 압박 수준이 리그 평균을 상회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K리그 밖에서 전북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옵타(opta)에 의뢰해 독일 분데스리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82개팀 기록과 비교해봤다. 공격 "경기당 6.5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82개 팀 중 상위 5%에 해당한다. 전북과 비슷한 기록을 남긴 팀은 광저우 에버그란데(6.93)와 호펜하임(6.77)이다. 키패스 기록에서는 82개 전체 팀 중 1위를 기록했다." 스타일 "전북은 1초당 전진속도가 2.05m다.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전북보다 전진속도가 빠른 팀 대부분 분데스리가 2부 클럽들이었다." 수비 "경기당 소유권 회복이 가장 많은 팀은 바이에른 뮌헨, 전북(57.92), RB 라이프치히로 나타났다. 인터셉트(12.32), PPDA(10.8)에서 전북이 모두 K리그 1위에 올랐다. 이재성의 새 소속팀 홀슈타인 킬의 PPDA는 10.78이다. 전북과 유사한 압박 스타일을 구사하는 팀이라 흥미롭다. 이재성을 영입하는 데 더욱 확신을 가졌을 수 있다." 도움말. 이안 스투어트(옵타 아시아 컨설턴트)

경남 돌풍, 하반기가 가른 성적표

경남이 승격팀 신화를 썼다. 시즌 초중반 부침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결국 2위를 차지했다. 스플릿 A 순위는 하반기 변동이 비교적 컸다. 경남과 함께 울산, 포항이 휴식기 이후 반등에 성공했고 제주와 수원엔 추락했다.



경남FC
파란을 일으키다

스스로 K리그1 잔류와 함께 리그 8위를 목표로 밝혔던 경남이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월드컵 휴식기 이후 성적이 눈부셨다. 전반기를 5위로 마친 경남은 하반기 11경기 무패행진을 거듭하며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시즌 막판 울산의 견제에 잠시 3위로 내려앉기도 했으나, 곧바로 2위를 탈환하며 정규리그 한 경기를 남겨두고 순위를 확정했다.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의 성과다. 시·도민 구단 최고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2013년 ACL에 진출한 승격팀 역시 경남이 처음이다.

경남 축구의 키워드는 '실리'였다. 경남은 안정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으로 실속을 챙겼다. 기록에서 선전 이유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은 볼 점유율(44.7%), 패스 횟수(1만 5,078개)에서 최하위권(11위)이었다. 슈팅(470개) 역시 8위권으로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상 득점(48.78골)을 훌쩍 뛰어넘

는 성과(59골)를 냈다. 문전에서 약속된 간결한 플레이로 결정력을 끌어올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상대 박스 내 볼 터치가 최하위(609개)였지만, 득점률이 12.6%로 전체 2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실리 축구는 확실한 골잡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체 조건이 좋고 유연한 스트라이커 말캉이 26골을 몰아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테크니션 네게바와 활동량까지 갖춘 쿠니모토가 공격에 위력을 더했다. 여기에 '인터셉트 1위(97개)' 최영준, '슈팅 차단 1위(37개)' 박지수 등이 수비에서 버텨주며 경남 성공 신화를 일궈냈다.

하반기 반등과 추락
울산-포항, 제주-수원 '희비'

상위 스플릿 구단 가운데 월드컵 휴식기 전후 순위를 유지한 건 전북이 유일했다. 아시아 무대 진출을 향한 티켓 주인공도 휴식기를 기준으로 전북 빼고 모두 바뀌었다. 최종 2위부터 4위까지는 반등에 성공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구단들이다. 전반기 5위 경남이 2위로 시즌을 마쳤고, 전반기 6위였던 울산은 3위에 올랐다. 포

항은 전반기 대비 4계단 경중 뛰어올라 3년 만에 상위 스플릿에 안착했다. 반면 휴식기 전 각각 2,3위를 달리고 있었던 수원과 제주는 뒷심이 약했다.

울산과 포항의 약진은 하반기 영입 성과와 더불어, 꾸준한 패스 플레이와 결정력의 힘으로 봐야 한다. 울산은 패스 부문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패스 시도(1만 8,620회), 성공(1만 5,043회), 성공률(80.8%)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공격 1/3지역 패스 성공률이다. 68.3%로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유기적 패스를 기반으로 울산은 득점력도 과시했다. 예상 득점(49.96골) 보다 10골 이상 많은 61골을 넣었다. 주니오(22골)이라는 확실한 득점 루트를 기반으로 국내외 선수 15명이 득점에 가세했다. 포항은 울산 뒤를 이어 패스 부문 2위였다. 슈팅 횟수(432회) 11위로 아끼는 편이었으나, 박스 안에서는 슈팅 비율 3위(59%)로 적극성을 보였다.

하반기 최악의 부진으로 한때 7위까지 순위가 추락한 제주는 지난해 대비 화력이 크게 준 경향이 짙었다. 팀 득점 10위(42)로, 예상 득점(47.14골) 보다 적었음은 물론 12개 구단 중 가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수원은 점유율의 허상을 보여주었다. 54.2%로 점유율 리그 1위를 기록했으나, 정작 박스 안 슈팅 비율은 8위(52.8%)로 순위가 푹 떨어졌다. 유효 슈팅(30.7%) 역시 리그 11위로 나타났다. 지난 시즌 홀로 팀의 득점 35%를 책임져 주었던, 조나탄의 공백은 컸고 득점 TOP10에 데안(13골)만 외로이 이름을 올렸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 올라가기 위한 전쟁

K리그1 잔류 싸움은 2018년에도 치열했다. 서울은 창단 첫 승강 플레이오프 참가의 굴욕을 겪었고, 전남은 기업구단 최초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K리그2에서는 시즌 끝무렵까지 아산과 성남이 챔피언 자리를 두고 다했다.



막판 집중력이 관건이다

이번에도 인천은 살아남았다. 2라운드에서 전복을 잡고 이전과 다른 시즌을 보내는 듯했으나 두 번째 승리를 차지하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이후 승리와 무승부를 반복했으나 초반에 잃은 승점이 너무 많았다. 결국 최하위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천은 괜히 '생존왕'이 아니었다. 상주, 강원, 서울, 전남을 연달아 잡고 9위로 마쳤다. 시즌 막판 들어서며 최고조에 달하는 인천의 집중력이 2018시즌도 발휘된 것이다. 대구도 그렇다. 후반기 좋은 흐름을 최종전까지 유지했다. 상, 하위 스플릿을 통틀어 최고 성적(3승 2무)을 달성해 2년 연속 잔류에 성공했다. 최하위 전남은 달랐다.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

기 전, 4경기 무패(3승 1무)를 달리며 잔류 가능성이 높았지만 마지막 6경기에서 모두 패해 강등을 면치 못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2경기에서 무승부 한 번만 거둬도 잔류를 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인천, 상주에 무릎 꿇으며 부산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다.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잡아야 한다

강팀의 조건이다. 2018시즌 K리그2 우승, 승격 경쟁도 여기서 같았다. 챔피언 아산은 상위권에 약했다. 광주, 부산과 동률(1승 2무 1패)이었고, 대전 상대로는 1승 1무 2패로 열세였다. 그러나 하위권을 만나면 달랐다. 수원FC와 안산에 4전 4승, 부천과 서울이랜드에 3승 1무를 기록했다. 하위 5개 팀에 패한 기억은 26라운드 안양

원정이 유일했다. 시즌 막바지에 빛을 발했다. 하위권에 5연승으로 성남을 꺾고 조기 우승을 차지했다.

성남이 트로피를 놓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상위권에 아산보다 많은 승점을 얻었지만, 하위권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비기는 경우가 잦았다. 연승 분위기를 만들다가 하위권에 발목 잡히기도 했다. 특히 10위 서울이랜드(1승 2무 1패), 9위 안산(1승 2무 1패)과 맞대결에서 승점 10점만 얻어 2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순간마다 승점을 놓쳤다. 부천에 유독 그랬다. 2무 2패로 9개 팀 중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53골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한 부산이었으나 부천과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다.

미래를 만들어가다

R리그(Reserve League)에 힘을 쏟은 대구가 2018시즌 열매를 맺었다. 유망주의 화수분 인천, 포항, 전남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광주는 잘 키운 유소년 선수 한 명이 열 외국인 선수 부럽지 않았다.

02

CHAPTER

주전으로 성장한 유망주들

2018시즌 전남은 강등의 아픔을 겪었지만, 프랜차이즈 선수들의 성장이라는 기쁨도 누렸다. 6명이 1군에서 총 90경기를 소화했다. 한찬희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불박이 주전으로 도약해 데뷔 후 최다 출전(31경기), 최다 공격 포인트(2골 6도움)를 기록했다. 허용준은 9골로 팀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였다. 이유현은 윙어와 풀백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함은 물론 A대표팀에 승선하기도 했다. 인천이 뒤를 이었다. 풀백으로 변신한 김진야는 인천 측면을 이끌었다. 김보섭, 이정빈, 임은수도 중요할 때마다 골과 도움을 올리며 인천의 잔류 신화에 일조했다. 유소년 명가 포항과 수원도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 반면, 강원과 경남은 유스 출신 선수가 1군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다.

K리그2에서는 광주가 빛을 봤다. 프로 2년차를 맞이한 나상호가 잠재력을 터뜨렸고, 16골을 넣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성남은 전 포지션에 걸쳐 어린 선수들이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연제운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윤영선, 임채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비를 든든히 지켰다. 공교롭게도 하위 5개 팀 유소년 선수들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1군에서 빛난 R리그 경험

2018시즌 대구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최악의 성적(1승 4무 9패)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하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연승 행진을 달리며 상위 스플릿 진출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했다. 중심에 R리그 출신 선수들이 있었다. 어린 선수들에게 R리그 출전 기회를 부여해 실전 경험을 쌓게 한 후 1군에 부르는 대구의 선수 육성 방식이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

K리그1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 1군 출전 (최근 3년 내 입단 신인 선수 기준)

팀	출전 합계	출전시간(분)
전남	90	5774
인천	76	4762
포항	71	5458
수원	38	2605
서울	17	1438
울산	11	494
제주	5	485
전북	4	225
대구	2	192

대구의 R리그 활용법

선수명	R리그 출전(2016~18)	1군 출전(2018)
홍정운	14	35
정승원	40	31
김진혁	8	25
박한빈	21	24
류재문	6	23
김대원	37	23
김우석	23	20
정선호	11	13
홍승현	28	4

K리그2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 1군 출전

팀	출전 합계	출전시간(분)
성남	71	5683
광주	32	2925
부산	26	1148
대전	1	12

R리그-K리그 출전 (2016~18 R리그 10경기 이상, 2018 K리그 10 경기 이상 출전)

6명	홍정운, 정승원, 박한빈, 김대원, 김우석, 정선호
5	이정빈, 김보섭, 김정호, 김진야, 김동민
4	양한빈, 황현수, 김한길, 김동우
3	이동수, 김현욱, 이동희
2	김중우, 유주안
1	한승규, 임찬울

할 수 있다. 2016년 R리그 우승 주역 김대원은 2018년 대구 1군 국내 선수 최다 공격 포인트(3골 5도움)의 주인공이었다. 정승원은 1선과 2선을 오가며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고,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홍정운과 김우석은 베테랑 수비수 한희훈의 부상으로 생긴 빈자리를 제대로 메웠다. 인천도 R리그로 검증받은 수비수 김정호, 김동민을 기용해 재미를 봤다. 2018년 제주에 입단한 미드필더 이동희는 전반

기 R리그에서 적응을 마친 뒤, 후반기 주전으로 활약하며 제주의 상승세를 도왔다. 서울과 울산은 R리그 덕분에 핵심 선수를 얻었다. 유상훈, 유현에게 밀려 주로 R리그에서 뛰던 양한빈은 이제 K리그 최고 골키퍼로 꼽힌다. 처음 주전으로 시즌을 보낸 한승규는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경기(31)에 출전했고, 2018시즌 영플레이어상의 영광을 안았다.

TECHNICAL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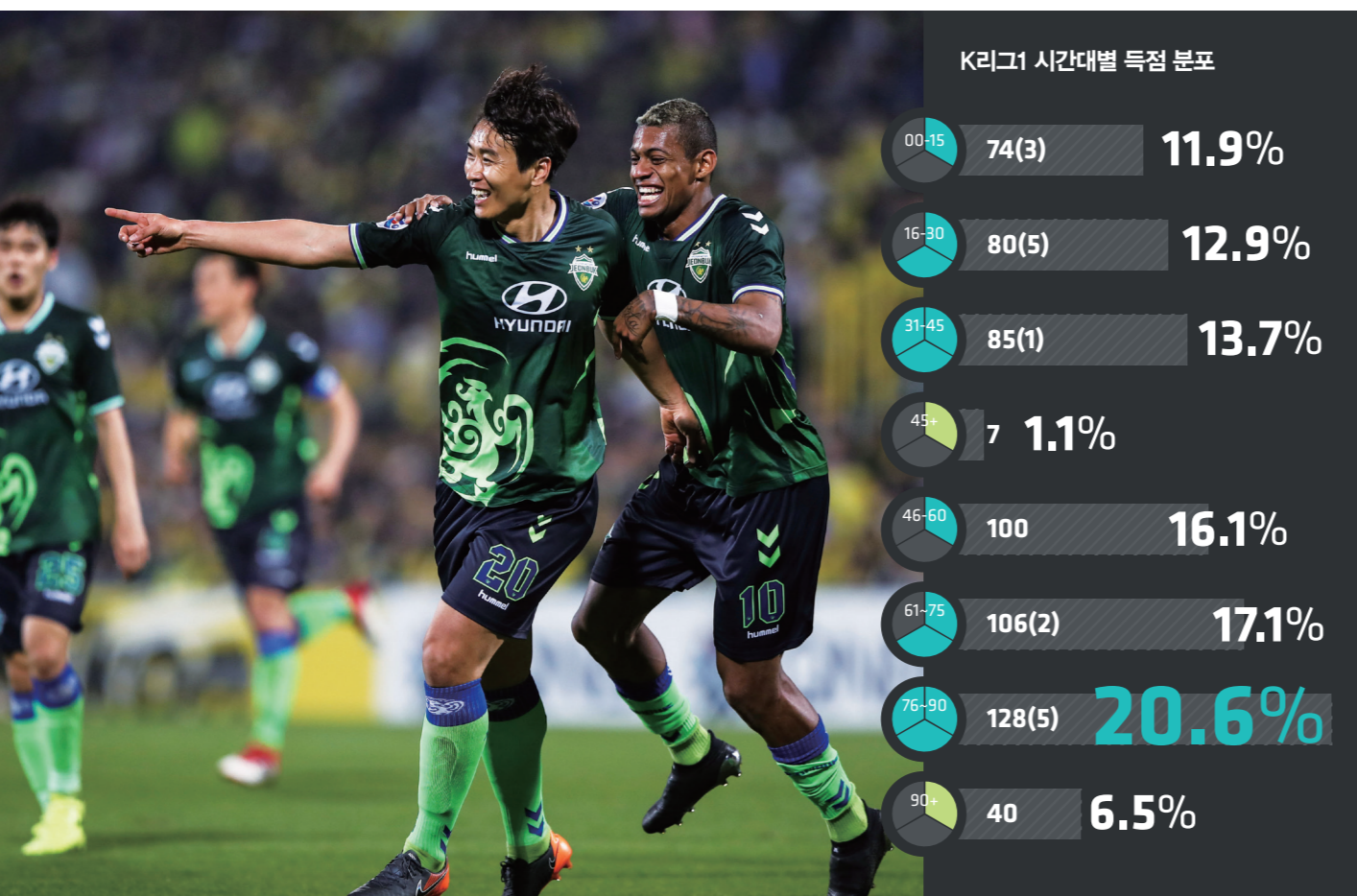
2018시즌 K리그에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해 보았다. 득점 패턴부터 점유율까지, 의미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메이션은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2018 이슈도 기록으로 정리해 돌아봤다.



GOAL PATTERN

득점 패턴을 보면 팀 스타일이 보인다

축구의 완성은 골이다. 전년보다 총득점 기록이 감소한 가운데, 전북과 울산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이들이 상위권에 자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셀러브레이션 타임은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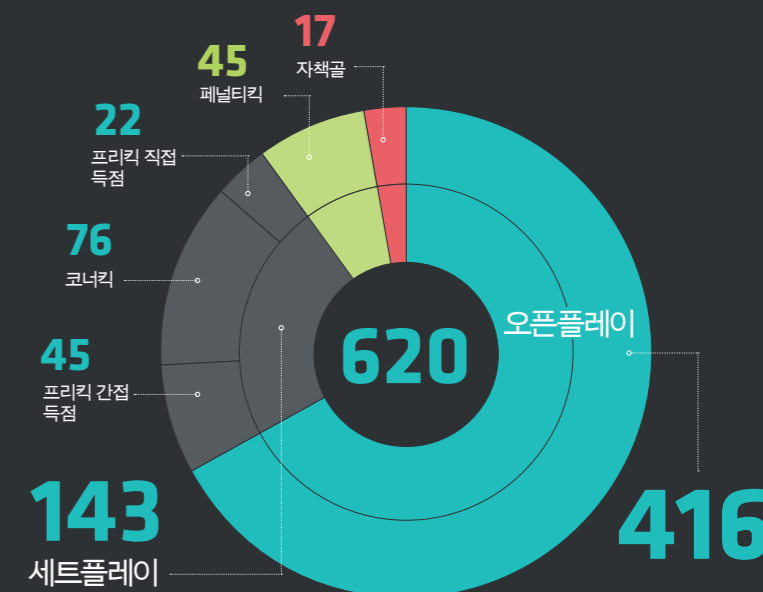
2018시즌 K리그에서는 모두 620골이 나왔다. 전반전보다 후반전 득점이 더 많은 패턴은 어느 시즌과 다르지 않았다. 후반 득점이 374골로 총득점의 60.3%에 달한다. 시간대별로는 경기 종료 전 15분 간(76분~90분) 가장 많은 골이 쏟아졌다. 90분 이후 추가시간 득점도 40골이 나 된다. 승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임박한 만큼 평균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시간대는 전반 15분 간이다. 74골만 나왔다. 15분 단위로 집계하는 득점 기록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경기 초

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짙다는 시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팀도 존재한다. 인천이다. 인천은 경기 막판 극장골을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기록이 가리키는 지점은 전혀 다르다. 2018년 인천은 후반보다 전반전 득점이 많은 유일한 팀이다. 특히 킥오프 후 15분 간 13골을 만들어냈다. 팀 내 득점 분포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온 시간대다. 경기 막판 15분간 득점은 10골로 그보다 적고, 90분 이후 추가시간대 득점도 1골 밖에 안 된다. 리그 전체로 확장해도 초반 15분 간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이다. 심지어 전북(10골)보

다 많다.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팀이리기 보다 이른 시간대에 골을 넣고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반 대비 후반 득점이 극적으로 달라진 팀은 상주와 전남이다. 전반보다 두 배 이상의 골을 몰아넣었다. 최다 득점의 전북은 전후반 내내 고른 득점 분포를 보였다. 초반 15분(10골)과 경기 종료직전(76분~추가시간, 23골) 각각 많은 골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경기 내내 골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가는 팀 특성이 기록으로 증명된 셈이다.

K리그 팀별 전후반 득점 분포

팀	득점	전반전	후반전
전북	75	30(40%)	45(60%)
경남	59	18(30.5%)	41(69.5%)
울산	61	23(37.7%)	38(62.3%)
포항	48	21(43.8%)	27(56.2%)
제주	42	19(45.2%)	23(54.8%)
수원	53	19(35.8%)	34(64.2%)
대구	47	20(42.6%)	27(57.4%)
강원	56	23(41.1%)	33(58.9%)
인천	55	28(50.9%)	27(49.1%)
상주	41	12(29.3%)	29(70.7%)
서울	40	19(47.5%)	21(52.5%)
전남	33	12(27.9%)	31(72.1%)



득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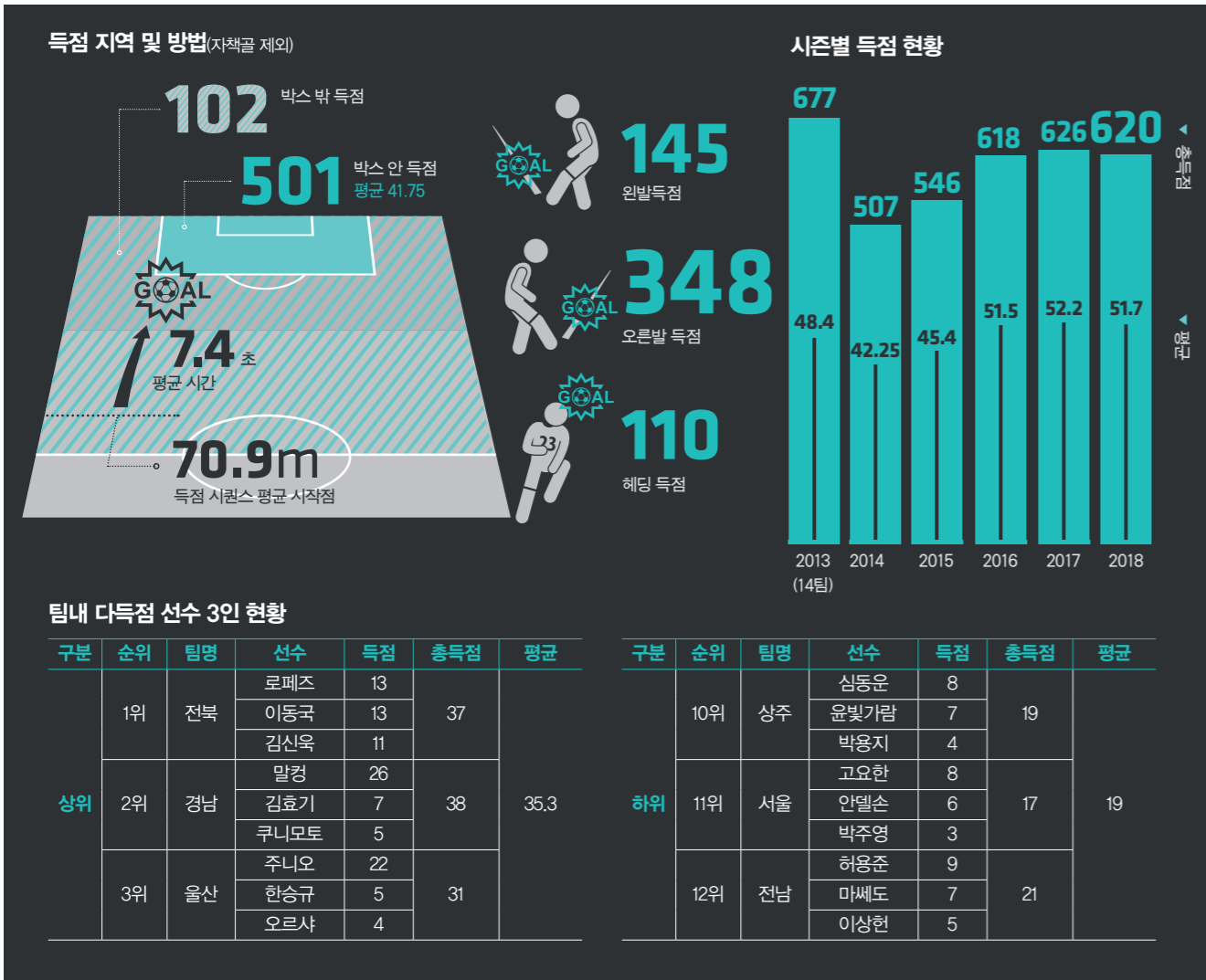
득점 방법으로는 오픈플레이에서 416골(67.1%), 세트플레이에서 143골(23.1%)이 나왔다. 나머지 17골은 자책골이다(*이하 분석에서 자책골은 제외함). '다공' 전북은 오픈플레이(49골)와 세트플레이(18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세트플레이 득점의 다양성을 주목할 만하다. 코너킥(9골), 프리킥(9골)으로 고무 골을 만들었다. 시즌 중 휴슈타인 킬로 이적한 이재성을 포함해 아드리아노, 이승기 등 좋은 키퍼를 보유해 유리했다. 장신 공격수(김신욱, 이동국)와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을 활용한 부분 전술, 압박을 통한 세컨드 볼 확보에서 우위를 점했다. 다만 직접 프리킥(3골) 득점은 전년(6골)보다 줄었다. 전남 키퍼 김진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오랜 기간 팀을 비웠기 때문이다. 세트플레이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팀은 포항이다. 코너킥으로 4골, 프리킥으로 2골을 만드는데 그쳤다. 프리킥 직접 득점은 제로(0)다. 오픈플레이(36골)가 세트플레이 득점보다 6배 이상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패스워크 기반의 팀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포항은 공격 1/3지역에서 패스 시도(3305)가 리그 네 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지역에서 패스성공률(67%)도 3위에 해당한다. 오픈플레이 크로스

도 546회 시도해 리그 3위를 차지했다. 경남도 세트플레이(9골)보다 오픈플레이(45골) 득점 비중이 높았다. 울산은 조금 특별한 경향성을 보였다. 총득점 60골로 전년(42골)보다 142% 상승했다. 오픈플레이로 45골을 넣었는데, 전북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다. 반면 세트플레이(8골) 득점은 포항, 경남과 비슷한 수준이다. 페널티킥으로는 자그마치 7골이나 챙겼다. 이 부문 리그 1위다. 골문 앞에서 침투, 돌파, 슈트 시도 등 위협적인 장면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여기서 울산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오픈플레이와 페널티킥 득점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울산에는 시즌 중 이적한 오르샤를 포함해 황일수, 김인성, 이근호 등 솔로플레이가 가능한 스프린터들이 많았다. 한승규, 김승준, 이영재 등 침투와 돌파에 능한 공격 자원도 풍부했다. 주니오의 결정력도 탁월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시로 득점 기회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공격 1/3지역 패스 성공률(68.3%)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뛰어난 키퍼를 보강한다면 2019시즌 득점패턴은 한층 다채로워질 수 있다.

효율성 강한 전북, 연계성 높은 울산

골을 넣은 지역은 박스 안으로 집중됐다. 501골

이 박스 안에서 나왔다. 중거리슛, 프리킥 등으로 만들어낸 박스 밖 득점은 102골이었다. 박스 안 슈팅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은 강원(60.5%)이다. 걸출한 득점원 제리치(24골)와 만능 공격자원 디에고(7골6도움)의 재능을 살리는 플레이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득점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은 어디일까. 득점 시퀀스를 통해 확인한 평균 시작점은 70.9m였다. 팀별로 들여다보면 평균치와 일치하는 팀은 제주(70.9m)다. 전북(70.7m), 울산(70.2m)도 비슷한 지점에서 득점 연계작업이 시작됐다. 세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할 때, 압박을 통한 볼 탈취 후 역습으로 연계하는 패스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팀은 서울(77.9m), 강원(77.5m)다. 숫자가 클수록 골문에 가까운 지점을 뜻한다. 서울과 강원은 골문에 가까워질 때 보다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득점에 걸린 시간이다. 득점 시퀀스에서 가장 빨리 골을 만들어낸 팀은 서울이다. 평균 시간이 5.3초였다. 다음은 5.9초의 전북이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울산(9.4초)과 비교하면 간극은 커진다. 시퀀스로 해석하면, 서울은 박스에 가까워질 때 득점 연계작업이 시작됐으므로 득점을 완성하는 데 걸



린 시간도 짧다. 반면 전북의 경우 비교적 먼 거리에서 연계작업을 시작해도 박스 안으로 볼을 전달하는 시간이 빨랐다. 롭패스, 침투 패스 등을 활용한 효율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전북과 비슷한 지점에서 득점 연계작업이 시작된 울산의 경우,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길었다. 패스와 침투를 통한 전진으로 볼을 운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결출한 득점원이 성적을 좌우한다

감독들은 흔히 '외국인 농사가 일년을 좌우한다'고 한다. 좋은 스트라이커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기록으로도 입증된다. 2018시즌 결출한 득점원을 보유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가 성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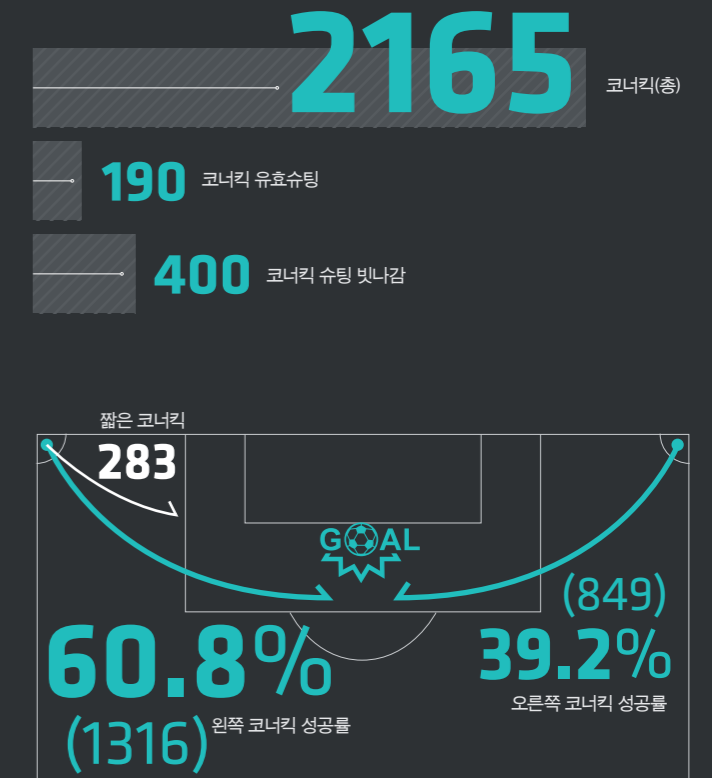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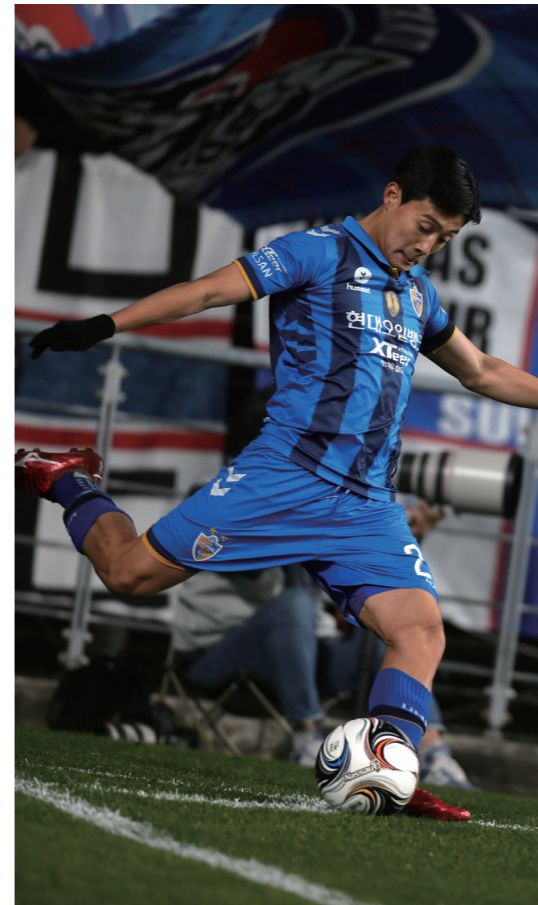
특히 상위 세 팀과 하위 세 팀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 전북, 경남, 울산 등 상위 3팀의 팀내 다득점 3인은 평균 35.3골을 넣었다. 전북의 경우 로페즈, 이동국, 김신욱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이들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팀 전술과 풍부한 지원군이 존재한 덕이다. 그러나 찬스를 골로 완성하는 결정력은 결국 스트라이커의 몫이다. 세 선수 모두 결정력이 탁월했다. 이동국의 경우 출전시간(경기당 평균 45.4분)이 많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 경남과 울산의 경우 탁월한 결정력을 지닌 스트라이커 한 명이 팀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득점왕 말경은 물론이고 득점레이스에 가세한 주니오 모두 20골 이상을 책임졌다. 여기에 동료들의 지원이 더해지면 팀 득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위권의 세 팀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팀내 다득점 3인 모두 10골 이상 넣지 못했다. 군팀

상주의 경우 순수 국내선수로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통 스트라이커보다 공격 센스를 가진 선수들의 득점이 높다. 포지션 변경 등 변칙 운영을 통해 득점을 쌓았다. 서울을 보면 더 난감해진다. 주로 중원과 수비를 오가는 멀티플레이어 고요한이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다. 외국인 안델손의 득점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격 핵심 자원 박주영의 득점 기록은 3골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골은 페널티킥으로 만들었다. 전통의 팀 서울이 왜 11위로 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허용준은 비교적 제 몫을 했지만, 외국인 공격수 운영은 실패에 가깝다. 팀내 득점 3위가 임대영입한 신에 이상현이라는 점도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다. 전남을 기다린 건 1995년 창단 후 첫 2부리그 강등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CORNERS 코너킥을 해부하다

세트피스는 득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다. 전력이 약한 팀이라도 약속된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 수 있다. 프리킥은 상대적으로 직접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코너킥은 거의 반드시, 동료와 협업을 요하는 전술이다. 코너킥 기회를 허투루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8시즌 K리그에서 나온 코너킥 기회는 모두 2165회다.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시도한 코너킥의 성공률이 높았다. 코너킥 기회를 가장 잘 살린 팀은 어김없이 전북이다. 코너킥을 얻은 횟수도 가장 많았고(221), 코너킥 득점도 10골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코너킥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공격 옵션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김신욱, 이동국 등 장신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수비수들도 공격에 가담해 상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짧은 코너킥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술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골문까지 볼을 전달하는 협업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다. 세컨드볼 확보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압박

과 역습에 능한 팀에게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확률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코너킥만으로 팀 득점의 앞자리 수가 달라지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팀이었다. 전북에서 코너킥을 전담한 선수는 손준호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았다. 성공률은 리그 평균과 조금 달랐다. 오른쪽 코너에서의 성공률(43.9%)이 왼쪽 코너에서의 성공률(13.2%)보다 많았다. 전북만큼 흥미로운 팀은 인천이다. 코너킥 득점 기회도 44번이나 만들었다. 리그 최고 수치다. 코너킥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팀은 포항과 경남이다. 두 팀 모두 4골에 그쳤다. 포항은 프리킥까지 포함한 세트플레이 득점이 6골밖에 안 된다.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코너킥 훈련에 좀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숫자로 보는 2018시즌 K리그



1

이번 시즌 K리그 우승팀은 전북이다

2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5

5년 연속 전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다

6

조기 우승이라 더 특별했다. 전북은 시즌 6경기를 남겨두고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86

전북이 챙긴 승점은 86이다. K리그 역대 최다 승점이다. 또 한번 새로운 고지를 밟았다

21

2위 경남과 승점 차. 압도적인 전북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229

전북의 우승을 이끈 최강희 감독은 통산 229승을 기록했다. 2005년 감독 데뷔 이후 13년 만에 쌓은 기록이다. 역대 최단기간 최다승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5444 명

K리그1 경기당 평균 유료관중



1707 명

K리그2 경기당 평균 유료관중



2.71

K리그1 경기당 평균 득점



2.36

K리그2 경기당 평균 득점



33.1 분

K리그1 1골당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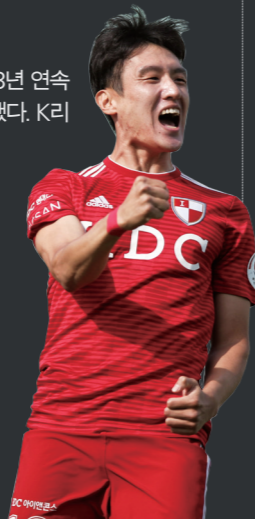
2

말캉은 26골로 K리그1 득점왕과 MVP를 수상했다. 지난시즌에는 2부리그 득점왕과 MVP 타이틀을 챙겼다. 1부리그와 2부리그 모두 정상에 오르며 K리그를 평정했다



3

부산의 고경민은 3년 연속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K리그 사상 최초다.



6

전북 '원클럽맨' 최철순은 팀의 K리그 우승 현장에 모두 함께했다. 2009, 2011, 2014, 2015, 2017, 2018까지 총 6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



인천은 3년 연속 '잔류극장'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플릿 최종전에서 1부리그 잔류를 확정했다

3



부산은 승강플레이오프와 악연이다. K리그 소속이던 2015년 2부 팀 수원FC에 덜미를 잡혀 강등됐다. 2017, 2018년 연달아 승강플레이오프에 나섰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11



서울의 K리그1 최종순위. 시즌 중 감독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부진을 겪었다. 승강제 실시 후 처음으로 승강플레이오프에 참가했다

51



2018년 엔트리에 한 번이라도 등록된 대전 선수수는 모두 51명이다. 실제 출전에 인원은 46명. 1, 2부 통틀어 최다 인원이다

4

시즌 도중 지휘봉을 내려놓은 감독 숫자(K리그). 황선홍(전 서울), 이기형(전 인천), 송경섭(전 강원), 유상철(전 전남)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2

남기일 감독이 소속팀을 승격으로 이끈 건 두 번째다. 2014년 광주와 함께 처음 1부리그에 올랐다. 2018년에는 성남 감독으로 승격을 지휘했다. 2부 우승팀 아산이 승격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무월로 1부리그를 밟게 됐다

18

최강희 감독과 최철순, 이동국은 전북의 6회 우승을 합작했다. 셋의 우승 횟수를 모두 더하면 18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한 선수들이다. 2018시즌 전 경기 전 시간을 소화했다. 특히 필드플레이어 김승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인정할 만하다. 말 그대로 무쇠체력이다

이동국이 또 한번 새 역사를 만들었다. 2018년 11월10일 제주전에서 통산 502번째 경기를 소화했다.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던 김기동(포항 코치)의 501경기 기록을 깼다. 시즌을 마무리한 그의 기록은 504경기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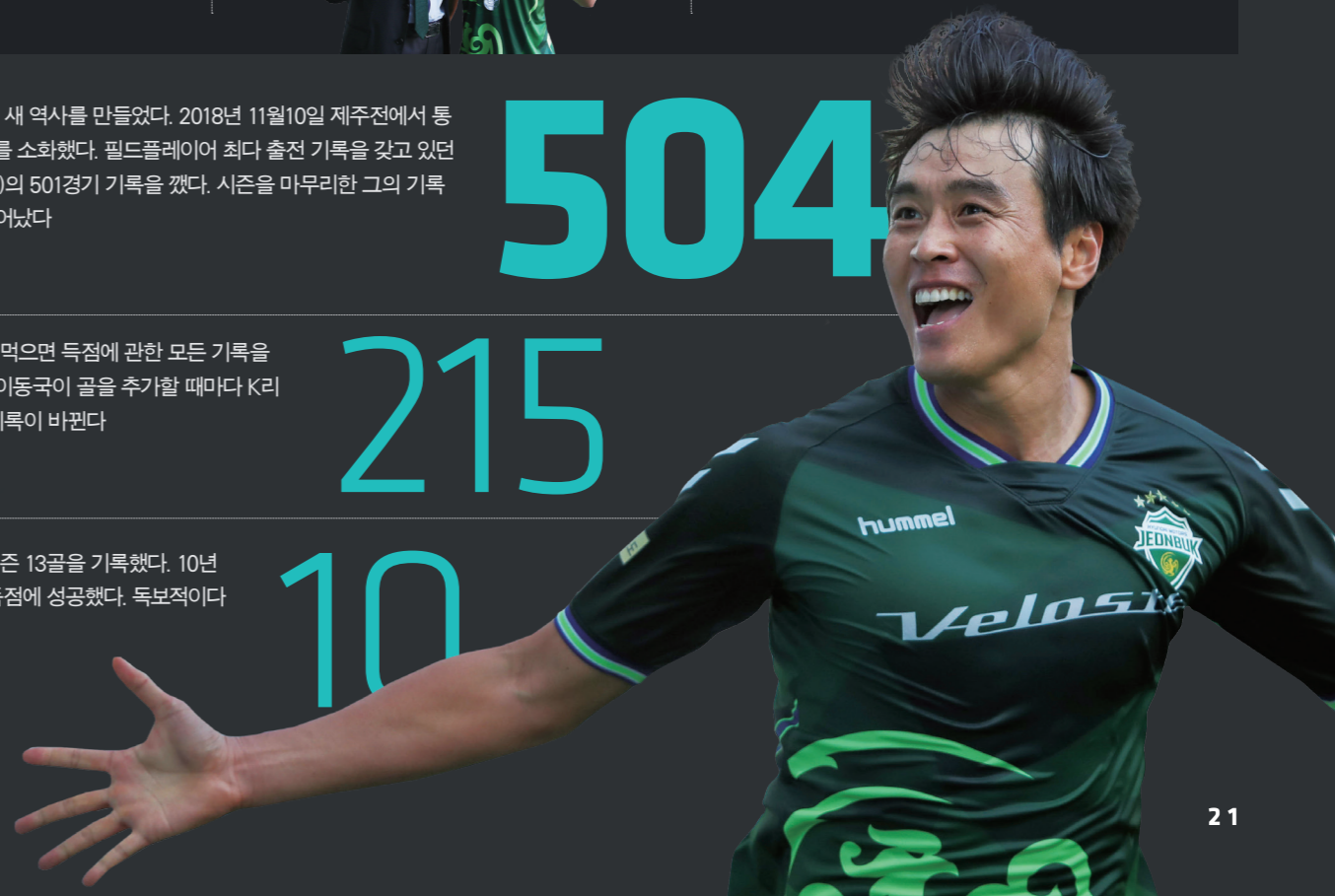
504

이동국이 마음만 먹으면 득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 이동국이 골을 추가할 때마다 K리그 통산 최다골 기록이 바뀐다

215

이동국은 2018시즌 13골을 기록했다.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독보적이다

10



FORMATION

포메이션, 팀 철학 반영하다

- 이 장에서 표기한 승률은 주 포메이션을 활용했을 때의 승률을 의미함
- 포메이션 데이터는 경기 기록표 기준

포메이션은 팀 철학을 담은 그릇이다. 숫자를 통해 보유자원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전북은 원톱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을 높이는 공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경남은 공수 전환과 균형에 신경을 쓰는 틀에 최적화했다. 울산은 공격 2선과 미드필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이런 일관성을 기반으로 시즌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주와 강원, 전남은 포메이션 다변화를 추구했다. 선수 조합을 바꾸고 멀티 플레이어를 활용하는 등 꾸준히 전술적인 변화를 꾀했다. 시즌 중에 닥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비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북현대모터스 

주 포메이션 4-2-3-1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67.5%**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11	5	4
4-1-4-1	6	2	0
4-4-2	3	1	0
4-5-1	1	0	1
4-4-1-1	1	0	0
3-5-2	1	0	0
3-4-1-2	1	0	0
3-1-4-2	1	0	0
4-1-3-2	1	0	0


경남FC 

주 포메이션 4-4-2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71.2%**

포메이션	승	무	패
4-4-2	15	7	4
4-4-1-1	0	2	4
4-2-3-1	2	0	1
4-3-3	1	1	0
4-5-1	0	1	0


대구FC 

주 포메이션 3-4-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44.4%**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7	2	9
4-3-3	2	1	3
4-2-3-1	0	2	1
3-4-2-1	2	0	0
3-4-1-2	1	1	0
3-5-2	1	0	1
4-1-3-2	0	1	1
4-1-4-1	1	0	0
4-4-2	0	1	0
4-4-2	0	1	0
5-4-1	0	0	1


강원FC 

주 포메이션 4-2-3-1 (9회)




주 포메이션 승률 **50%**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4	1	4
4-3-3	2	2	2
3-4-3	1	2	3
3-4-2-1	2	1	0
4-4-2	1	0	2
3-5-2	0	2	0
4-1-4-1	0	1	1
5-3-2	0	1	1
3-4-1-2	1	0	0
3-1-4-2	1	0	0
4-4-1-1	0	0	1
4-3-2-1	0	0	1
5-4-1	0	0	1


울산현대 

주 포메이션 4-2-3-1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63.5%**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13	7	6
4-1-4-1	1	2	3
4-4-2	3	2	0
4-3-3	0	1	0

포항스틸러스 

주 포메이션 4-3-3 (28회)



주 포메이션 승률 **51.8%**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11	7	10
4-2-3-1	2	0	1
4-5-1	1	0	0
4-1-4-1	1	0	1
4-4-2	0	1	0
4-4-1-1	0	1	0
3-5-2	0	0	1
4-3-1-2	0	0	1


인천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4-3-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41.7%**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5	5	8
4-2-3-1	1	3	3
4-4-1-1	1	2	3
4-1-4-1	2	2	0
4-4-2	1	0	1
3-4-3	0	0	1


상주상무 

주 포메이션 4-1-4-1 (22회)




주 포메이션 승률 **36.4%**

포메이션	승	무	패
4-1-4-1	5	6	11
4-5-1	1	0	3
5-4-1	0	1	3
4-2-3-1	2	0	0
5-3-2	0	1	1
4-4-1-1	1	0	0
3-5-2	1	0	0
4-4-2	0	1	0
4-3-3	0	1	0


제주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3-5-2 (9회)




주 포메이션 승률 **61%**

포메이션	승	무	패
3-5-2	5	1	3
3-4-1-2	3	2	3
4-4-1-1	3	1	1
3-1-4-2	0	3	2
3-4-3	0	2	1
4-2-3-1	2	0	0
4-1-4-1	0	2	0
3-4-2-1	0	1	1
5-3-2	1	0	0
4-3-3	0	0	1

수원삼성블루윙즈 

주 포메이션 3-4-3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57.5%**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9	5	6
3-4-2-1	2	2	1
4-2-3-1	0	2	2
4-1-4-1	2	0	0
4-3-3	0	1	1
4-5-1	0	1	1
4-4-2	0	0	2
4-4-1-1	0	0	1

FC서울 

주 포메이션 4-3-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41.7%**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5	5	8
3-5-2	1	3	2
4-1-4-1	1	2	1
4-4-2	0	2	2
4-2-3-1	2	0	0
4-4-1-1	0	0	1
5-3-2	0	0	1
4-2-2-2	0	0	1
3-4-1-2	0	0	1

전남드래곤즈 

주 포메이션 4-2-3-1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33.3%**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4	0	8
3-4-3	1	4	5
3-4-2-1	1	1	3
4-3-3	2	1	0
4-4-1-1	0	0	3
5-4-1	0	0	2
4-4-2	0	1	0
3-4-1-2	0	1	0
4-1-4-1	0	0	1



아산무궁화축구단

주 포메이션 4-2-3-1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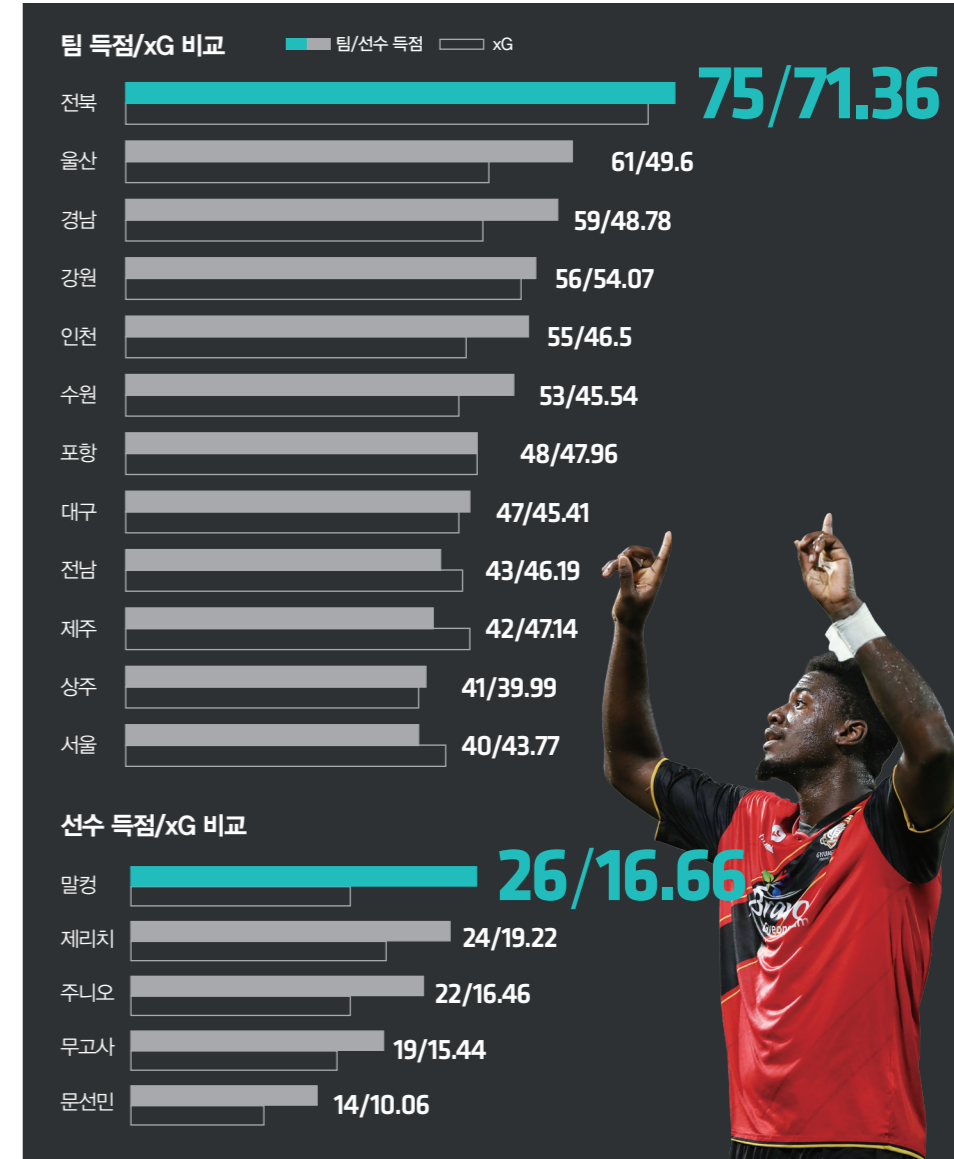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6	4	1
4-3-3	2	1	3
3-4-2-1	3	0	2
4-1-4-1	3	0	0
4-4-2	2	1	0
4-5-1	2	1	0
4-1-3-2	0	2	0
3-4-3	1	0	0
4-3-1-2	1	0	0
3-5-2	1	0	0

xG, 시퀀스, 포제션... 신개념 데이터, 축구 분석이 달라진다?!

해외리그 관련 데이터를 보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예상득점(xG; eXpected Goal)'이다. 2018시즌 K리그1에도 같은 분석기법이 적용됐다. 그런데, 득점을 예상하는 일이 가능한 걸까?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정말로 축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까?

xG: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통계와 분석의 차이다. <머니볼>의 주인공 빌리 빈에 따르면 "통계는 결과"다. 득점을 예로 들어보자. 리오넬 메시가 수비수 9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고, 말캉은 문전에서 쉽게 밀어넣는 움직임으로 골을 만들었다는 가정이다. 통계, 즉 결과로는 동일한 '1골'이다. 그렇지만 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를 따지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분석이다. 통계적으로는 같은 골이지만, 분석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면 메시와 말캉의 골은 완전히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한다. 물론 메시의 골이 다른 골보다 나오기 어렵다. 예상득점(xG)은 바로 이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한다. 스포츠 통계 전문업체 옵타(Opta)가 데이터를 활용해 6년 넘게 가다듬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샷이 골이 될 확률은 어떻게 뽑아낼까. 옵타의 데이터 콘텐츠 책임자인 덩컨 알렉산더는 "그라운드 어느 지역에서 슈팅했는지, 몸의 어떤 부분을 사용했는지, 어떤 패스에서 슈팅했는지, 슈팅 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 선수는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모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맞고 이어지는 크로스는 xG가 낮다. 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너킥 상황에서는 페널티 박스에 상대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낮다. 반면 발로 연결한 스루패스는 상대 수비수의 수를 줄여서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조건들을 하나의 수식에 집어넣고 xG값을 뽑아낸다. 이 수치는 경기, 시즌, 선수, 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xG는 직관적으로 경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된다. 2018시즌 K리그1에서 xG와 실제 득점이 거의



동일했던 팀은 포항이다. xG가 47.96, 실제 득점은 48골이었다. 팀의 플레이스타일과 공격 패턴에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전 시즌과 비교해 변수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xG를 크게 상회한 팀은 울산이다. xG는 49.6이었지만 실제로는 61골을 기록했다. 앞서 언급한 '득점 과정'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빌드업을 기반으로 한 공격 작업에 세밀함이 생겼다. 패스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울산은 상대 진영에서 패스성공률(79.7%)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성남FC

주 포메이션 4-2-3-1 (9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3	5	1
3-4-2-1	6	1	1
3-1-4-2	3	0	2
3-5-2	2	2	1
3-4-1-2	3	1	0
4-3-3	1	1	2
4-1-4-1	0	1	0

주 포메이션 승률 **61.1%**

부산 아이파크

주 포메이션 4-3-3 (15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6	6	3
4-2-3-1	1	2	1
3-4-2-1	1	2	1
3-5-2	3		
4-4-2	0	2	1
4-4-1-1	1	0	1
3-4-1-2	1	0	0
5-4-1	1	0	0
4-1-4-1	0	1	0
3-1-4-2	0	1	0
4-2-2-2	0	0	1

주 포메이션 승률 **60%**

대전시터즌

주 포메이션 4-3-3 (14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6	5	3
4-2-3-1	2	1	3
4-1-4-1	3	0	2
3-4-2-1	0	1	3
4-5-1	2	0	0
5-3-2	1	1	0
4-4-2	1	0	1
3-5-2	0	0	1

주 포메이션 승률 **60.7%**

광주FC

주 포메이션 4-2-3-1 (13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4	4	5
4-1-4-1	1	2	4
4-3-3	2	4	0
4-4-1-1	2	2	1
4-4-2	2	2	0
3-4-2-1	0	1	0

주 포메이션 승률 **46.2%**

FC안양

주 포메이션 4-4-2 (10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4-2	2	3	5
4-2-3-1	4	0	2
3-4-2-1	3	0	3
4-4-1-1	2	0	2
4-1-4-1	0	3	1
4-3-3	0	2	1
5-4-1	1	0	1
4-2-2-2	0	0	1

주 포메이션 승률 **35%**

수원FC

주 포메이션 4-3-3 (10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3-3	6	1	3
4-2-3-1	3	1	6
3-4-2-1	2	0	5
3-5-2	0	1	2
3-1-4-2	0	0	1
4-1-4-1	0	0	1
3-4-1-2	1	0	1

주 포메이션 승률 **65%**

부천FC

주 포메이션 4-2-3-1 (16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5	2	9
4-3-3	4	0	2
3-4-2-1	1	1	2
3-4-1-2	0	2	1
4-2-3-1	0	1	1
4-4-2	0	0	2
4-1-4-1	1	0	0
4-4-1-1	1	0	0
4-1-3-2	0	0	1
5-4-1	0	0	1
3-5-1-1	0	0	1

주 포메이션 승률 **37.5%**

안산그리너스

주 포메이션 3-4-2-1 (11회)

포메이션	승	무	패
3-4-2-1	5	3	3
4-3-3	1	1	4
4-1-4-1	2	0	3
4-2-3-1	0	2	2
5-4-1	0	1	3
4-4-2	0	1	1
4-1-3-2	1	0	0
5-3-2	1	0	0
4-2-2-2	0	1	0
3-5-2	0	1	1

주 포메이션 승률 **59.1%**

서울이랜드FC

주 포메이션 4-2-3-1 (11회)

포메이션	승	무	패
4-2-3-1	2	4	5
4-3-3	2	1	4
3-4-2-1	2	1	2
4-4-2	1	1	2
4-4-1-1	0	0	3
3-5-2	2	0	0
4-1-4-1	1	0	1
4-2-2-2	0	0	1
5-4-1	0	0	1

주 포메이션 승률 **45.5%**

공격 1/3지역에서 패스성공률이 68.3%로 나왔다. 전체 1위다. 하반기에 합류한 미드필더 믹스의 영향이 컸다. 그의 패스성공률은 88.4%로 팀내 1위다. 결정력 높은 공격수 주니오(22골)의 가세도 실제 득점에서 드라마틱한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반면 제주와 서울, 전남은 실제 득점이 xG를 밑돌았다. 제주는 42골(xG 47.14), 서울은 40골(xG 43.77), 전남은 43골(xG 46.19)이었다. 세 팀 모두 2018시즌 기록과 부진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퀀스는 뭐고 포제션은 뭐지?

축구는 주도권 쟁탈전이다. 밀고 밀리는 싸움의 연속이다. 볼 소유와 점유율이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과거에는 볼을 다루는 시간 혹은 횟수로 점유율을 해석했다. 볼을 소유한 시간이 길수록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식이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었다. 예컨대 백패스나 횡패스를 포함해 수비진에서 볼을 돌리는 경우다. 볼을 다루는 시간은 길지만 골을 만드는 데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긴 어렵다. 최근에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볼을 소유하는 동안 공격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공격 1/3지역에서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하는지, 패스 혹은 크로스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지,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들여다 본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시퀀스(sequence)와 포제션(possesion)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퀀스는 영화나 건축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일치한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는다. 볼을 잡아(기)- 상

대 방해를 뚫고(승)- 공격을 전개해(전)- 득점 혹은 마무리슈팅으로 맺는다(결). 쉽게 말해 공격 연계 작업을 '한 덩어리'로 본다. 때문에 세트피스(드로인, 프리킥 등)로 공격 연계가 끝날 경우 시퀀스는 종료된다. 즉, 세트피스 이후 새로운 시퀀스가 시작된다. 포제션은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같은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통해 볼 점유가 이어질 경우 포제션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북을 예로 들면, 2018시즌 시퀀스는 6488회이고 포제션은 4111회다.

이 개념으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 시퀀스 평균 시간이 6.8초(11위)다. 1위팀 울산의 9.3초와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편이다. 그러나 시퀀스 평균 전진속도(2.05m/s, 1위), 평균 길이(14m, 1위)를 확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빠른 속도로 간결하게 공을 최대한 앞으로 전진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시퀀스 시작점(49.2m)과 포제션 평균 시작점(36.4m)도 리그 최고 수준이다.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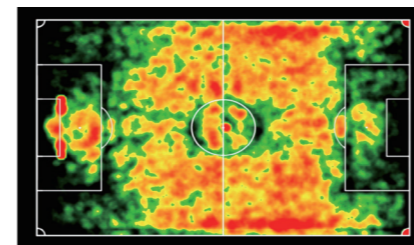
선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송범근에서 시작해 이용-이동국을 거쳐 김신욱으로 끝난 시퀀스라면, 네 선수 각각 시퀀스가 '1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K리그1에서는 패스 횟수에 따른 시퀀스/포제션 분석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이용이 굉장히 성실한 '운반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퀀스 기록(1720)만으로 리그 3위에 올랐다. 공격 1/3지역에서도 신진호, 로페즈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0~2회 패스, 3~5회 패스 시퀀스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공격 가담 횟수와 볼 관여도가 매우 높았다는 뜻이다. 라이트백이라는 포지션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기록이다.

앞서 설명했다 시퀀스는 공격 연계작업이 상대 방해로 중단될 때 끝난다. 포제션은 시퀀스 종료 후에도 소유권이 유지되는 경우를 통으로 묶는다. 스로인, 코너킥, 골킥 등을 활용해 주도권을 갖는다. 이 부문에서 역시 가장 노련한 팀은 전북이다. 전체 포제션에서 4111을 기록했다. 경기당 터치는 616회로 중간 수준(6위)이었다. 점유율도 50.9%로 중간 정도다. 그렇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 경기당 평균 30회 터치가 이뤄져 1위에 올랐다. 공격 1/3지역에서의 소유권 확보도 1위다. 평균 점유율보다 골문에 가까워질 때

볼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전북의 적극성은 소유권 회복에서도 드러난다. 소유권 회복은 루즈 볼을 획득해 소유권을 가져온 플레이를 말한다. 경기당 57.9로 역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인터셉트 기록도 리그 최고 수치다.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좁히면 조금 다른 지표가 나온다. 볼 소유에 관련한 포항의 강상우가 가장 높은 관여도를 보였다. 최순호 감독이 칭찬하는 강상우의 헌신성이 기록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기당 70회 정도 볼을 터치하고, 인터셉트와 소유권 회복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다방면에서 고루 관여했다. 포제션을 기준으로 추출한 TOP10 리스트를 보면 김승대, 채프먼 등 포항 선수가 세 명이나 올라왔다. 세 선수 모두 다른 영역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볼에 관여하는 포항의 플레이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의 최영준도 주목할 만하다. 볼 관여도도 높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비(소유권 회복, 인터셉트)로 팀에 기여했다. 시즌 전에는 무명에 가까웠지만 시즌 막바지에는 국가대표팀 선발 대상에 거론될 정도로 재평가 받았다.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터치맵으로 보는 팀 스타일



전북 터치맵
상대 진영에 붉은색이 쏠렸다. 수비보다 공격에 비중을 둔 팀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대 페널티박스 안까지 진입한 흔적이 두드러지며, 특히 아크 정면의 붉은색을 볼 때 중앙 공격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좌우 측면 공격도 활발했고, 공격 1/3지역 진입단계에서는 중앙에서의 움직임도 많았다.

팀 포제션: 공 소유부터 소유권 회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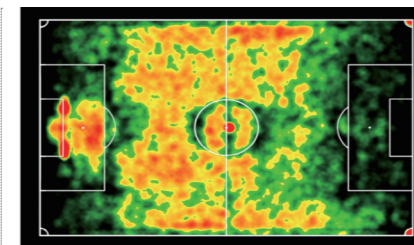
팀	포제션	평균시간(초)	점유율	터치	소유권 회복	인터셉트
전북	4111	18.7	50.9%	616.0	57.9	12.3
강원	3946	19.3	49.7%	614.9	51.7	10.7
인천	3905	18.4	49.3%	601.6	51.3	9.8
경남	3897	17.9	44.6%	570.0	50.8	10.8
대구	3865	18.6	43.7%	552.5	51.5	12.2
수원	3847	20.3	54.2%	640.6	54.6	10.0
포항	3827	20.8	52.8%	651.2	51.5	10.1
제주	3809	19.2	49.1%	629.5	51.4	10.3
전남	3779	20.1	49.4%	617.0	52.2	11.1
울산	3757	21.5	53.0%	653.9	49.3	10.2
서울	3738	21.9	53.5%	634.6	48.9	9.2
상주	3716	21.0	49.2%	599.5	50.9	10.0

선수 포제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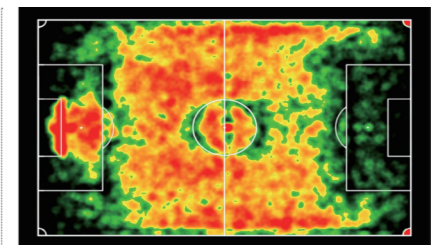
선수	소속팀	포제션	평균시간(초)	점유율	터치	소유권 회복	인터셉트
강상우	포항	1404	33.2	36.1%	70.4	7.2	1.5
신진호	서울	1387	35.3	48.2%	76.8	6.8	1.1
이용	전북	1376	29.7	37.2%	76.7	6.1	2.1
아길라르	인천	1369	31	41.1%	67.5	5.3	0.3
최영준	경남	1336	27.4	33.6%	64.5	7.1	2.6
정승용	강원	1316	32	33.0%	68.6	6.1	1.4
김승대	포항	1302	35.8	43.2%	58.2	4.9	0.2
윤빛가람	상주	1296	35.2	45.5%	70.6	6.5	0.9
채프먼	포항	1233	33.5	39.2%	67.3	6.5	1.4
이명재	울산	1218	35.6	36.8%	67.2	4.5	0.8

● xG 참고자료: <포포투> 2017년 11월호 ● 도움말: 이안 스투어트(움타 아시아 컨설턴트), 이용훈(움타 K리그 매니저)

볼 소유를 이해하는 지표 중 하나는 터치맵이다. 그림에서 보는 왼쪽이 자기진영이고 오른쪽이 상대 진영이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많은 움직임(볼 터치)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아래 세 팀의 터치맵을 비교해보자.



인천 터치맵
전북과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이다. 붉은색이 상대진영보다 자기진영에서 더 많이 보인다. 수비에 무게를 둔 안정적인 운영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대진영 왼쪽 측면의 붉은색이 유난히 짙다. 김진야의 공격 가담과 아길라르-남준재 혹은 문선민으로 이어지는 공격이 활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북에 비해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시도는 거의 없었다.



울산 터치맵
울산은 두 번째로 터치가 많았던 팀답게 전방위에 붉은색이 도드라진다. 특히 양 측면의 붉은색이 선명하다. 이명재, 김태환, 김창수, 정동호 등 좌우 풀백들이 오버래핑이 잦고 오르샤, 이근호, 김인성, 한승규, 김승준 등 측면에서 돌파와 침투를 즐기는 선수들이 많았다. 그라운드를 비교적 폭넓게, 골고루 사용한 편이다. 시퀀스상 평균패스가 가장 많았던 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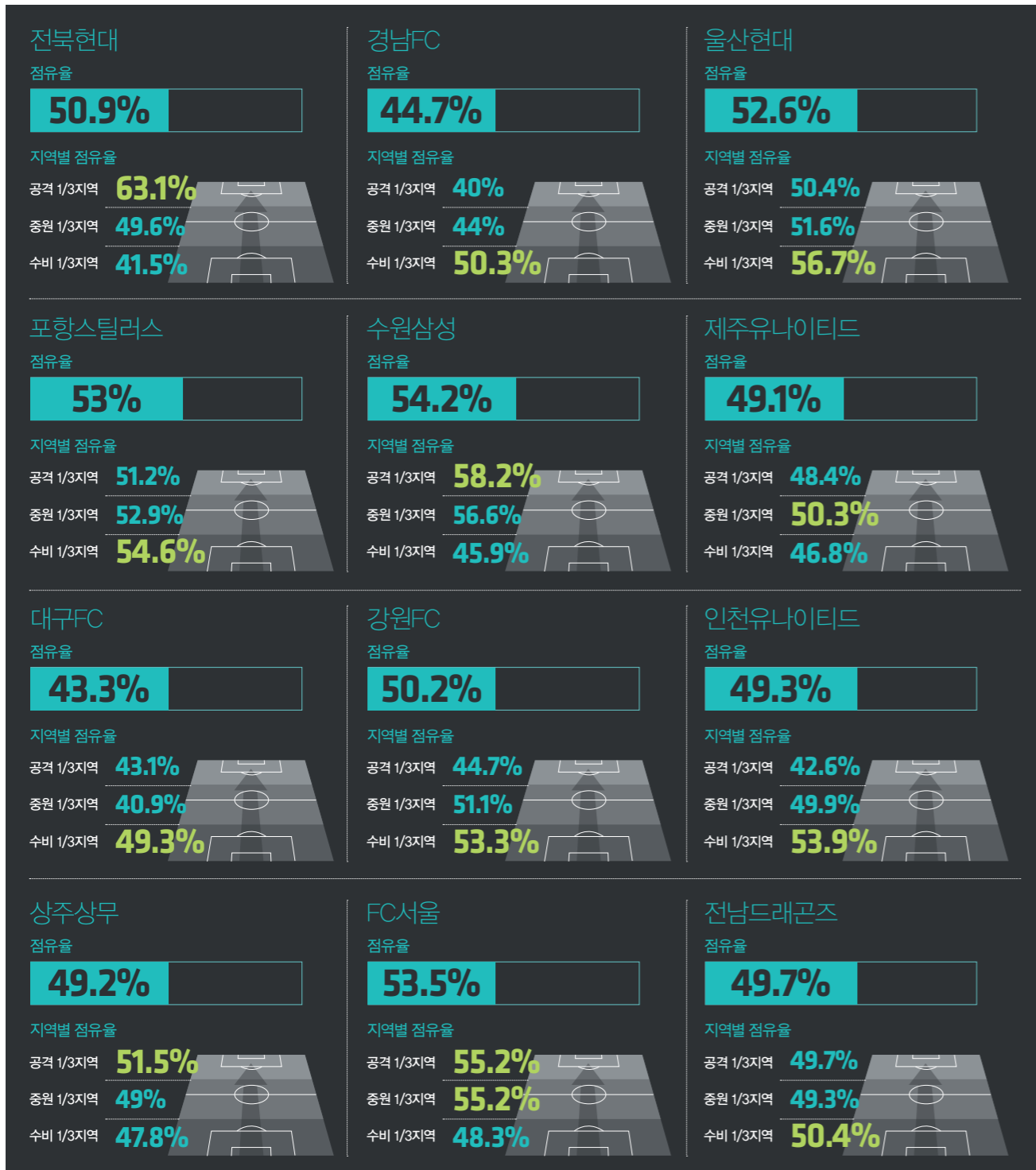
POSSESSION POSITION

지역별 소유권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서 확보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팀 스타일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꽤 의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CHAPTER

03



MEN IN NUMBERS

기록에 포커스를 맞추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량과 헌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 회복을 위한 볼 관여도, 가로채기, 공격 기여도 등도 따져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포지션과 역할에 따른 선수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

ATTACKING 공격에 방점 찍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제리치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조나탄 보다 많은 득점을 했지만, 그보다 2골을 더 넣은 말캉(26골)이 있었다. 리그 경기당 0.84골. 말캉은 독보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말캉은 K리그1에서도 통했다. 2013년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최다 득점을 터트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단순 지표는 지난시즌 K리그2 득점왕(22골) 당시를 상회한다. 4골을 더 넣었고, 슈팅 시도 대비 유효 슈팅 비율도 K리그1에서 보다 발전했다.

말캉의 기록 행진은 개막과 동시에 시작했다. 승강제 이후 개막전 최초 해트트릭으로 3골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부상과 퇴장 악재 속에서도 26골을 넣었다. 득점 5골 대비 적은 출전 경기와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캉은 '몰아넣기'에 일가견이 있었다. 출전한 31번 경기서 무려 8차례 멀티골을 터트렸다. 그중 2번은 해트트릭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출전 경기 25.8%에서 2골 이상을 넣은 셈이다.

말캉은 큰 키와 유연한 신체조건을 적극 활용했다. 박스 근처 경합에서도 능히 상당한 결정력을 자랑했다. 슈퍼컴퓨터의 예측도 크게 벗어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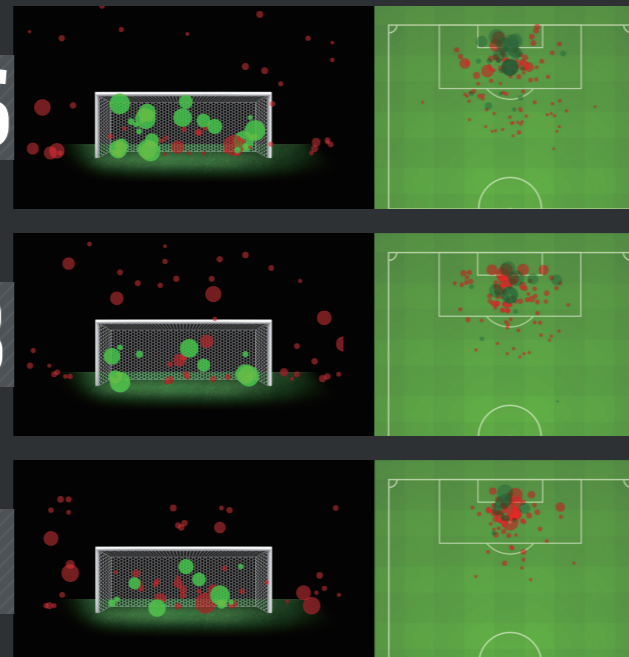
득점 (득점당 소요 플레이 수)

순위	이름	팀	득점	슈팅도	유효슈팅	출전시간
1	말캉	경남	26	122	53	2228
2	제리치	강원	24	112	46	2679
3	주니오	울산	22	119	50	2481
4	무고사	인천	19	149	56	2875
5	문선민	인천	14	75	32	2760

도움 (득점당 소요 플레이 수)

순위	이름	팀	도움	결정적기회	키패스	출전시간
1	세징야	대구	11	16	96	2138
2	아길라르	인천	10	9	105	2922
3	이용	전북	9	8	74	2790
4	홍철	수원	8	5	34	2534
5	한승규	울산	7	3	43	1948

장신 공격수 3인 슈팅 맵 다시 보기



말캉 — 득점 **1** 위 실제 득점 **26**
예상 득점(xG) 16.66

데안 — 득점 **7** 위 실제 득점 **13**
예상 득점(xG) 12.15

김신욱 — 득점 **9** 위 실제 득점 **11**
예상 득점(xG) 10.66

*말캉은 예상 득점 보다 10골 가까이 더 넣었다. 활동량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데안은 활동 반경은 넓었지만 유효 슈팅 비율이 25%에 그쳤다. 전년 대비 6골을 적게 기록했다.
***장신 공격수 김신욱의 슈팅 지역은 골문 앞으로 밀집되어 있다. 두드러진 특징이다.



16.66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0골 가까이 더 넣었다. 예상 득점(xG)이 상당한 정확도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이변이 아닐 수 없다. 득점왕 경쟁에서 상당한 견제를 하리라 보였던 데안, 김신욱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말캉은 넓은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상당한 슈팅의 정확성을 보였다. 유효 슈팅 비율 43.4%로 그가 때린 슈팅 둘 중 하나 가까이가 골대 안쪽을 향했다. 반면 데안은 유효 슈팅 비율이 25.5%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골망을 가른 건 다시 반토막(12.7%)이 났다. 득점 10골 안에 든 김신욱은 지협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스 안 슈팅 비율이 88%에 달했는데, 그중 헤더가 55.8%로 상당했다. 신입생 제리치는 성공적인 K리그 입성을 알렸다. 조나탄이 지난 시즌 유일하게 20골을 넘어 득점 선두에 오른 것을 볼 때, 예년이었다면 득

점왕을 차지하고도 남은 정도의 기록을 남겼다. 주니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주니오는 울산이 반등을 알린 하반기 첫 경기부터 멀티 골을 시작으로 하반기 시즌 최다 연속 득점(6경기) 기록 주인공이 됐다. 득점 5골에 2명 이름을 올린 팀은 의외로 인천이었다. 무고사-문선민은 각각 19골, 14골을 터트렸다. 외인 경쟁으로 좁혀진 득점왕 부문에 문선민은 유일한 국내 선수였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했던 도움 부문에서는 결국 세징야가 웃었다. 세징야는 결정적인 기회를 16번 창출해 냈고, 그중 11번 도움을 올렸다. 인선 공격 삼각편대 중 유일하게 득점 5골 순위에 들지 못한 아길라르는 도움 두 번째에 자리해 아쉬움을 씻었다. 키 패스 부문은 105회로 탁월했다. 세 자릿수 키 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아길라르가 유일했다. 다만 수비에 보다 무게를

뒤야 하는 팀 사정상 효율 면이 다소 밀렸다. 눈에 띄는 건 수비수 이용과 홍철의 랭크다. 특히 이용은 여타 미드필더에 비해 활동 반경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전하며 키패스 74개 비롯 도움 9개를 기록했다. 팀 내 최다 도움은 물론 키패스 역시 가장 많다. 공수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천후 미드필더 로페즈가 66개로 팀 내 2위였다. 이용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수비에서도 태클 시도 2위(106회)로 몸을 사리지 않았고, '부업' 크로스(250개)도 가장 많이 올려 재미를 봤다. 경기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도움 5골 마지막 한 자리는 영플레이어상 주인공 한승규에게 돌아갔다. 한승규는 도움 7개와 함께 5골도 터트리며 주니오에 이은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 2위를 꿰찼다. 지난시즌 9경기 출장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것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발군의 성장이다.

PLAYMAKING 효율적으로 경기 풀기

단순 볼 점유율과 패스 숫자, 심지어는 패스 성공률도 더 이상 승리를 설명하는 수치가 아니다. 2018 K리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경기를 설계하고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의 존재 유무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득점의 시발점이 된 패스 (기회-결정적 기회 창출 / 패스 성공률-공격/3지역 패스)

순위	이름	팀	키패스	기회	패스 성공률
1	아길라르	인천	105	9	75%
2	세징야	대구	96	16	77.4%
3	이용	전북	74	8	77.1%
4	로페즈	전북	66	9	73.7%
5	김승대	포항	61	7	83.6%

발끝에서 시작되는 '택배', 크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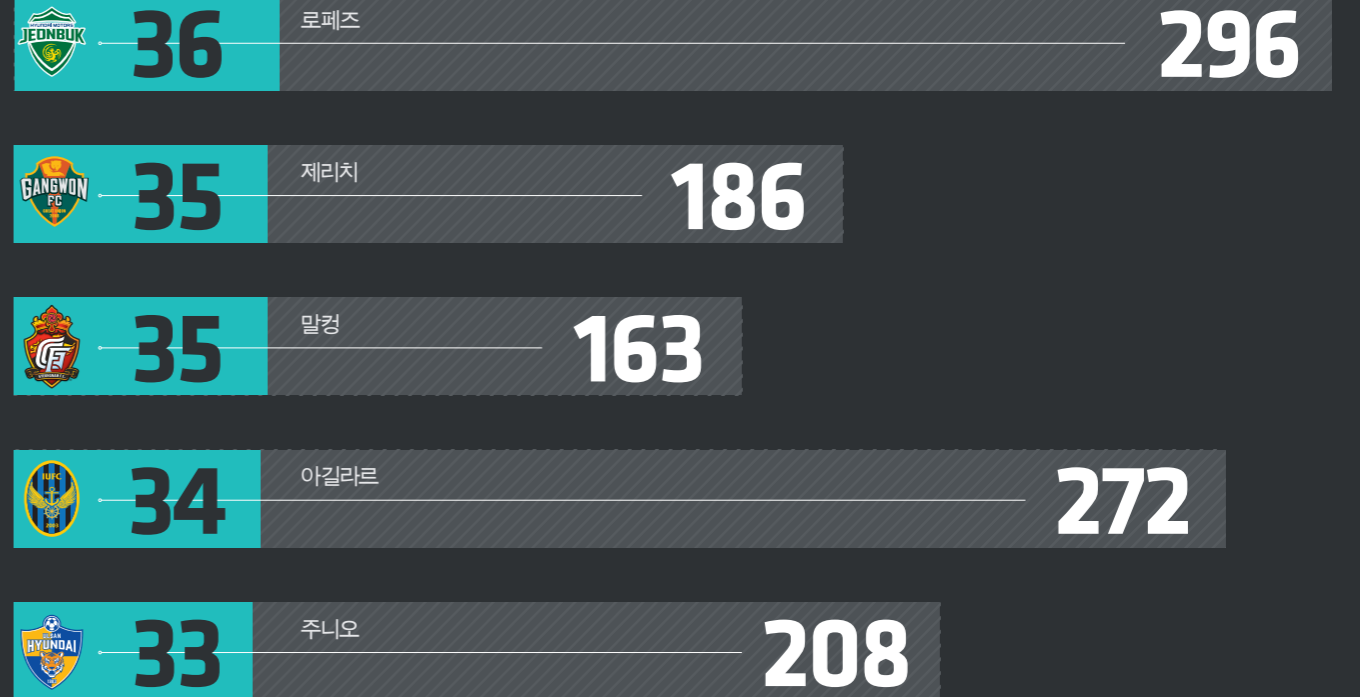
순위	이름	팀	크로스 시도	크로스 성공	크로스 성공률
1	이용	전북	250	76	30.4%
2	홍철	수원	229	45	19.7%
3	이명재	울산	207	57	27.5%
4	신진호	서울	183	61	33.3%
5	아길라르	인천	169	51	30.2%



포제션으로 보는 플레이 관여도

■ 득점 포제션(득점 완성까지 볼 관여도)

■ 슈팅 포제션(슈팅까지 볼 관여도)



주된 경향은 단순 패스 숫자가 성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연패에 성공한 전북은 패스 시도 리그 8위(1만 6,213회)에 그쳤다. 그중 성공한 건 1만 2,294회로 역시 하위권(9위)이었다. 패스 성공률은 더 나아가 최하위권(75.8%, 11위)을 기록했다. 2위에 오른 경남 역시 패스 시도와 성공 횟수에서 최하위권(11위)이었다.

중요한 건 결국 효율과 실리로 풀이된다. 상대 진영 또는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격 1/3 지역에서 소유권을 확보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줄 것인가 관건인 것이다. 이때 플레이메이커의 존재 가치가 빛난다. 올시즌 가장 이 일을 잘 수행한 선수는 아길라르, 세징야, 이용으로 나타났다. 아길라르는 키패스 부문에서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찍었다. '도움왕' 세징야는 키패스 횟수도 횟수지만 효율이 빛났다. 키패스 96개 가운데 16개를 결정적 기회 창출로 연결했다. 이는 최다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 비율이 16.7%에 달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라이트백 이용의 데이터다. 이용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분주히 키패스를 74개나 뿌렸다. 전북 공격포인트 1위를 기록한 로페즈보다도 8개가 많았다. 크로스 부문은 시도와 성공 부문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성공률에서는 크로스 5걸 가운데 2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로스만이 무기가 아니었다. 이용의 공격 1/3 지역 진입 횟수는 374번으로 리그 1위였는데, 긴 패스 비율은 오히려 여느 미드필더보다도 떨어지는 37.3%로 나타났다. 오버래핑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는 물론, 유기적인 패스로 상대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까지 이용이 공격 전반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상대 진영에서의 세밀한 패스와 유기적 움직임 강조하는 포항의 에이스 김승대는 팀 컬러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공격 1/3지역 패스 시도가 630개로 2위 염기훈(566개) 보다 60개 이상 많았고, 시도 대비 성공률도 78.3%로 상당했다. 상대 지역 패

스 성공률만 따지면 83.6%로 리그 1위였다. 포제션 기록을 살펴보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포제션은 상대 방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포제션은 상대 방해 이후에도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포항 강상우가 1위(1404번)로 나타났다. 그 뒤를 신진호(1387번), 이용(1376번), 아길라르(1369번), 최영준(1336번)이 따랐다. 득점과 슈팅 포제션은 보다 직접적이다. 로페즈가 왜 전북 공격포인트 1위가 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가능하다. 로페즈는 패스 시도 935번으로 전체 72위였다. 전진 패스 비율도 27.2%로 결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질이 좋다. 상대 진영 패스가 패스 시도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정적으로 그 패스를 득점과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리그 최고였다. 득점 포제션(36번)과 슈팅 포제션(296번)에서 전체 1위를 모두 로페즈가 휩쓸었다. 각각 득점 2위와 1위를 차지한 제리치와 말경도 대단했다. 슈팅 포제션에서는 오히려 아길라르(306번)에 미치지 못했으나 35번씩 잡은 득점 포제션에서 결실을 많이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DWORKING 투쟁심으로 활력 불어넣기

호전적인 플레이는 팀의 활력소이자 자극제가 된다.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경남 돌풍을 이끈 최영준은 2018년 최고의 전사였다.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는 바쁘다. 전방으로 볼을 전개 혹은 직접 마무리하는 공격적인 역할은 물론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저지하기도 해야 한다. 끝이 아니다. 몸을 부딪쳐 가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는 등 격렬한 플레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쟁심이 필요하다. 최영준이 2018 K리그1 베스트XI 미드필더를 수상한 이유도 여기 있다. 리그 37경기에 출전해 태클, 인터셉트, 소유권 등 전사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서 전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미드필더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태클을 시도했다. 인터셉트도 압도적인 차이로 최상위였다. 중원에서 최영준의 존재감이 상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플레이스타일과 비교해 반칙 35회, 경고는 4장에 불과했다. 효율적이었다는 뜻이다. 신진호의 고군분투도 눈에 띈다. 태클과 소유권 부문에서 최영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태클 성공률은 리그 30경기 이상 치른 선수 중에

그라운드 위리어

순위	이름	소속팀	태클(성공률)	경기당	인터셉트	경기당	소유권 회복
1	최영준	경남	108(41.3%)	2.92	97	2.62	263
2	신진호	서울	73(56.8%)	2.15	38	1.12	230
3	손준호	전북	72(48.5%)	2.4	30	1	187
4	오범석	강원	70(55.2%)	2.19	40	1.38	221
5	채프만	포항	66(40.2%)	2	45	1.36	216

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의 헌신이 팀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신진호를 제외하면, 서울 미드필더 중 누구도 태클과 인터셉트에서 30위 내에 들지 못했다. 외로운 싸움을 한 셈이다. 전북의 허리를 지킨 손준호도 만만치 않았다. 팀 성향이 공격적이라 수비에 힘을 쏟는 시간이 적었음에도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원과 포항의 미드필더 오범석, 채프만이 태클 부문 뒤

를 따랐다. 두 선수 모두 수비 라인 앞에 배치되어 1차 방어선으로 활약한 경기가 많았다. 준수한 태클 실력으로 소유권 회복에서 순위에도 들었다.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다. 경합 1위 인천 아길라르는 약간 다르다. 공격적인 전사라 할 수 있다. 수비보다 공격에 무게를 대부분 경합이 상대 진영에서 발생했다. 경남 네게바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공중의 전사는 채프만이었다. 188cm의 큰 키

로 공중 경합 158회에서 절반 가까이 성공했다. 뒤이어 울산 박용우와 인천 고슬기가 자리했다. 전북 신형민의 공중 경합 승률이 돋보인다. 무려 69.7%로 공중 경합에 100회 이상 가담한 선수 중 포지션을 통틀어 2위(*1위는 오반석 164회, 73.2%)에 해당한다. 게다가 미드필더에서는 유일하게 공중 경합 승률 60%를 넘겼다. 전북이 리그 최소 실점(31)을 기록한 데에 신형민의 공중볼 장악이 크게 기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손준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반칙왕이었다. 총 69회 범했다. 카드(경고 7장, 퇴장 1장)도 많이 받았다. 활발한 수비 가담의 증거이지만, 더 지능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진호(65회)가 뒤를 따랐고, 3위 상주 김민우(59회)는 카드를 단 한 장만 받은 정도로 효율적인 반칙을 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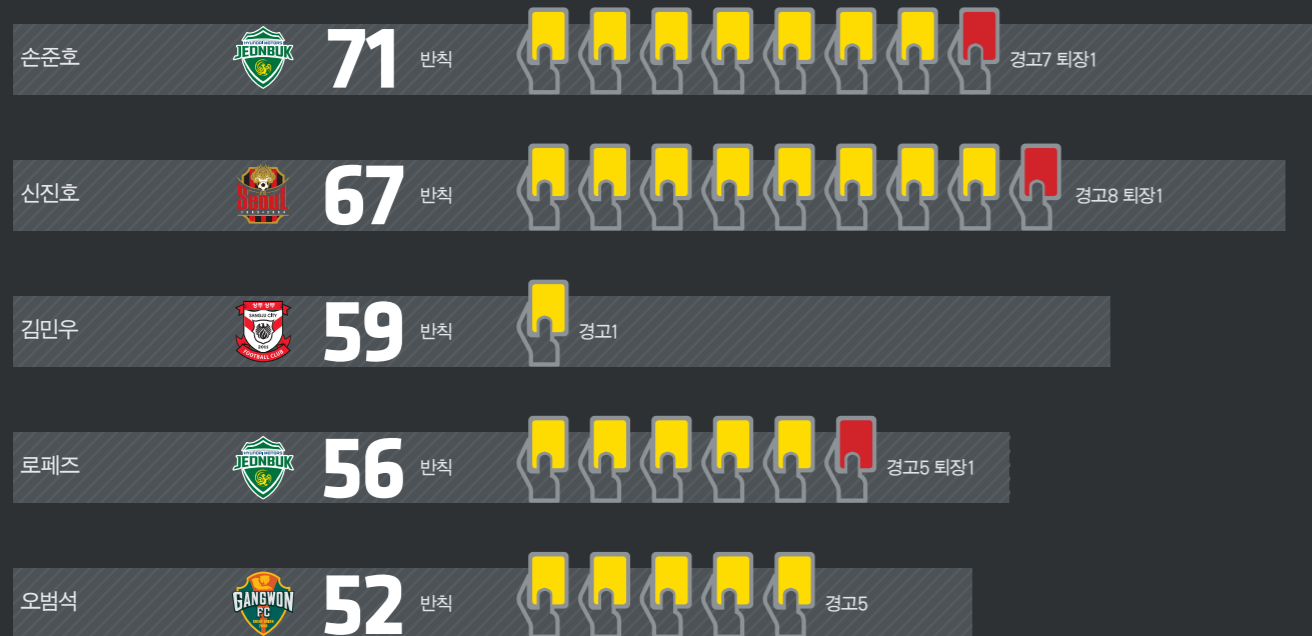
지상 경합

순위	이름	소속팀	지상 경합	승률
1	아길라르	인천	462	45.9%
2	최영준	경남	390	56.4%
3	네게바	경남	378	52.9%
4	채프만	포항	350	49.7%
5	정우재	대구	328	57.9%

공중 경합

순위	이름	소속팀	공중 경합	승률
1	채프만	포항	158	50.6%
2	박용우	울산	139	54.7%
3	고슬기	인천	138	50.7%
4	신형민	전북	122	69.7%
5	오범석	강원	99	47.5%

반칙왕



DEFENDING

위기에서 벗어나기

도움왕 이용의 진가는 수비에서도 드러났다. 수비수 중 리그 최다 태클을 시도했고, 인터셉트와 경합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했다. 박지수와 홍정운이 '핫'한 수비수로 떠오른 이유도 여기 있다.

수비가 강해야 승리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축구 격언이다. 2018 시즌도 다르지 않았다. 상위 스플릿에 오른 팀의 수비수들이 각종 지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태클의 주인공은 이용(106개)이었다. 말 그대로 독보적이었다. 전 포지션으로 시선을 돌려도 그렇다. 경남 최영준(108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태클을 시도했다. 성공률이 50%를 넘었고, 경기당 태클 수도 유일하게 3개 이상 기록했다.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포항 폴백 강상우가 뒤를 이었다. 이용과 마



태클

순위	이름	소속팀	태클(성공률)	경기당
1	이용	전북	106(54.5%)	3.31
2	강상우	포항	83(54.5%)	2.31
3	최철순	전북	79(53.7%)	2.82
4	한희훈	대구	77(57.4%)	2.66
5	박지수	경남	66(60.3%)	2

인터셉트

순위	이름	소속팀	인터셉트	경기당
1	홍정운	대구	94	2.69
2	이용	전북	66	2.06
3	김광석	포항	65	1.81
4	부노자	인천	62	2.07
5	김오규	강원	61	1.97

경합

순위	이름	소속팀	경합	성공률
1	홍정운	대구	384	57.6%
2	강상우	포항	343	58.9%
3	정승용	강원	300	62.3%
4	이용	전북	289	62.3%
5	박지수	경남	281	68.3%

클리어링

순위	이름	소속팀	클리어링	경기당
1	권한진	제주	211	6.59
2	박지수	경남	193	5.85
3	홍정운	대구	174	4.97
4	김오규	강원	172	5.55
5	김광석	포항	169	4.69

슈팅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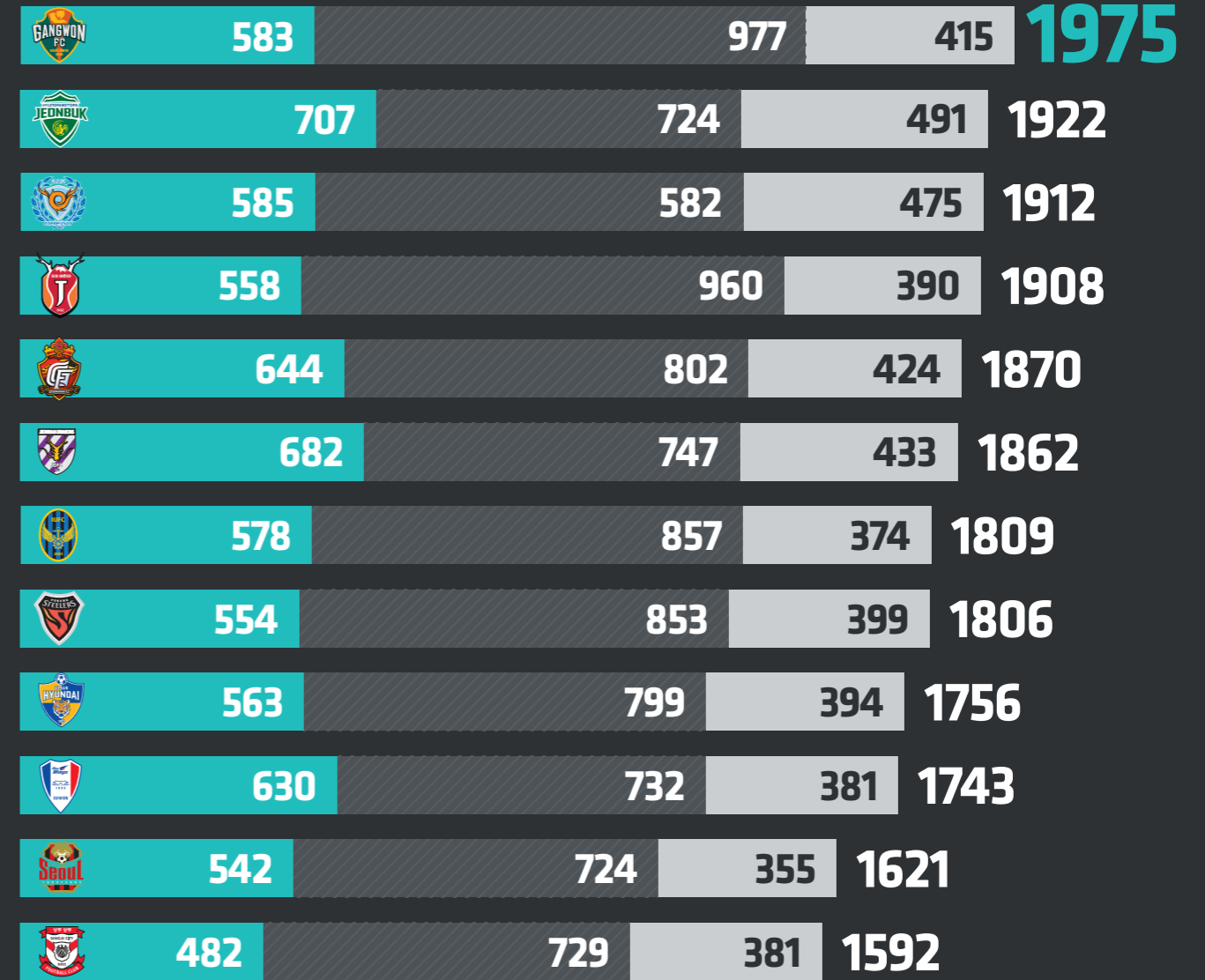
순위	이름	소속팀	슈팅 차단	경기당
1	박지수	경남	37	1.12
2	강민수	울산	31	1.03
3	최보경	전북	28	0.86
4	발렌티노스	강원	26	0.81
4	오반석	제주	26	1.08

전진 패스

순위	이름	소속팀	전진 패스	비율
1	우주성	경남	1161	50.7%
2	오반석	제주	1047	49.7%
3	양준아	전남	1121	49.5%
4	이용	전북	1408	48.7%
4	최보경	전북	1229	48.7%

팀 태클+클리어링+인터셉트

■ 팀 태클 ■ 클리어링 ■ 인터셉트



찬가지로 공격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 2018년에는 단일 시즌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3골 2도움)를 올렸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플레이로 태클과 경합 부문 2위를 차지했다. '투지의 아이콘' 전북 최철순도 지난 시즌처럼 태클 순위 상단에 자리했다. 박지수의 기세가 매섭다. K리그 첫 시즌이었지만, 적응 시간은 필요치 않았다. 빠른 발을 이용한 저돌적인 수비를 제대로 선보였다. 태클과 경합에서 5위, 클리어링 2위였다. 슈팅 차단에서 강민수(31개)를 6개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이 박지수의 플레이스타일을 방증한다. 대구 홍정운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데뷔해 주전으로 처음 시즌을 소화했는데, 위

치 선정에 능해 인터셉트 부문 최상단에 자리잡았다. 이용, 김광석 등 베테랑을 30개 가까운 차이로 제쳤다. 경합에서도 1위, 클리어링 3위 등 적극적인 수비로 안드레 감독의 중용을 받았다. 현대 축구는 수비수들에게 수비만 요구하지 않는다.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수비수 중 전진 패스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는 경남 센터백 우주성이었다. 50%를 넘은 수비수는 우주성뿐이었다. 공격 1/3 지역 진입도 234회로 이용(374회), 리차드(243회)에 이어 가장 공격적인 수비수라 할 수 있었다. 이용과 최보경은 공동 4위에 올랐다. 전북이 얼마나 공격에 무게를 실었고, 어떻

게 최다 득점 팀이 되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팀 전체로 살펴보면, 챔피언 전북은 태클과 인터셉트는 1위지만 클리어링에서 11위였다. 걷어내는 것보다 직접 볼을 빼앗아 소유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다 실점 3위(60) 강원은 클리어링에서 압도적 1위(977개)였는데, 그만큼 수비가 불안해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 잦았다. K리그 10위, 11위에 머문 상주와 서울의 부진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태클, 클리어링, 인터셉트 모두 하위권이었다. 수비가 흔들리자 공격도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이 전진 패스 비율(34.6%)에서 11위인 원인이 여기 있다.

GOALKEEPING 승점 지키기

2018시즌 K리그1 전 경기를 소화한 강현무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이었다. 신인 송범근의 탁월한 선방 실력은 전북의 챔피언 등극 이유이기도 했다. 제주 이창근은 다재다능함을 증명했다.

▶ 모든 기록은 15경기 이상 출전 선수 기준

골키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 번의 선방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거나 한 번의 실수로 다잡은 승리를 놓칠 수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과연 2018시즌 최고의 골키퍼는 누구였을까. 선방에서 포항 강현무와 서울 양한빈이 1위 자리를 두고 다툰 결과, 한 경기 더 치른 강현무가 근소하게 앞섰다. 선방률은 양한빈이 조금 나았다. 경기당 실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현무가 1.29실점, 양한빈이 1.24실점으로 중위권에 나란히 위치했다. 크로스 수비에서 양한빈이 차이를 만들었다. 크로스 허용 수는 강현무보다 적었으나 크로스 차단 1위(37회), 캐칭 2위(31회), 펀칭 1위(34회)로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다.

송범근은 대부분 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프로 데뷔 시즌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물론 전북의 전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송범근(11.53개)은 출전 경기 수 대비 슈팅 허용에서 하위권이었다. 그러나 선방률은 베테랑 골키퍼들을 따돌리고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유일하게 80% 이상이었다. 경기당 실점도 혼자 0점대였다. 참고로 교체 멤버로 된 전북 황병근은 7경기에 나서 13실점을 내줬다. 대구와 A대표팀 골문을 지키는 조현우는 송범근보다 경기당 슈팅 허용 수가 적었지만, 선방률은 20% 이상 뒤처졌다. 상대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슈팅을 시도한 숫자도 송범근이 가장 많았다. 송범근을 한 번 뚫으려면, 슈팅 19개를 시도해야 했다. 그만큼 뛰어났다. 전북 수비가 탄탄하다는 이유로 송범근의 능력 자체를 깎아내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골키퍼에게 선방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방이 중요하지만, 최후방 수비수 역할도 해야 한다. 이창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데



뷔해 처음 주전으로 시즌을 보내며 무실점 경기 16회를 기록해 선방 실력은 검증을 마쳤다. 스위퍼로서 능력도 두드러졌다. 전진 수비하며 볼을 처리한 횟수에서 2위 이호승(10)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패스는 강현무가 돋보였다.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했는데, 자기 진영으로 보낸 수가 특히 많았다. 단순히 멀리 차는 것이 아닌 가까이 있는 수비수에게 연결해 빌드업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수원 골문을 번갈아 지킨 노동건과 신화웅은 패스 성공률 각각 56%와 55.7%로 가장 정확한 패스를 구사한 골키퍼였다.

골키퍼 선방

순위	이름	소속팀	선방	선방률	슈팅 허용	실점당 슈팅	크로스 허용
1	강현무	포항	133	73.4%	588	12	776
2	양한빈	서울	131	73.7%	467	10.15	642
3	이창근	제주	111	74.2%	466	11.95	662
4	송범근	전북	95	84.2%	346	19.22	456
5	손정현	경남	89	78.1%	391	15.64	501

빌드업의 시작 및 최종 수비수

순위	이름	소속팀	패스 시도(성공률)	자기 진영 패스	스위퍼 역할
1	강현무	포항	1053(51.9%)	392	6
2	양한빈	서울	898(52.8%)	300	5
3	이창근	제주	835(51%)	306	17
4	이범영	강원	828(53.5%)	329	7
5	이호승	전남	706(49.9%)	273	10

TEAM OF THE YEAR

K LEAGUE 1

PLAYER OF THE YEAR 말깁

경남이 잔류를 넘어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거라 예상한 이가 있었을까. 시즌 내내 돌풍의 팀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이 공격수의 존재감이 절대적이었다. 말깁이다. 말깁은 2018시즌 리그 26골을 기록했다. 팀 득점(59골)의 44%를 책임졌다. 전년도 2부리그에서 20골 고지를 넘긴 유일한 공격수였지만 시즌 전 예상득점(xG)은 16.66골이었다. 1부리그에는 까다로운 수비수들이 훨씬 많고, 템포와 활동량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골에 대한 집중력은 예상 수치를 상회했다. 슈팅 기록(122개)부터 전년(155개)보다 늘었다. 유효슈팅(53)이 43.4%로, 슈팅 두 번 중 한 번은 골문으로 향했던 셈이다. 오른발(50.8%), 왼발(22.1%), 머리(27%)를 골고루 이용해 슈팅을 시도했다. 말 그대로 '온몸이 무기'였던 셈이다. 전북의 베테랑 이용의 활약상도 독보적이다. 본업이 수비수이지만 득점 기여도가 높았다. 9도움을 기록했다. 볼 점유에 관여한 횟수는 1376회로, 리그 통틀어 3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격 1/3지역에서 볼을 건드린 횟수가 784회로 1위에 해당한다. '볼 운반자'로서 공격과 수비에 두루 영향력이 컸다.

이용은 말깁과 함께 K리그1 MVP를 다했다. 충분히 인정할 만한 활약상이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말깁이 선정단의 마음을 좀 더 흔들었다. 개인상의 최고 영예는 말깁의 몫으로 돌아갔다.

2018시즌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는 누구일까. 베스트XI의 면면은 기록으로도 드러난다. 기록에는 거짓이 없다.

50.8%

오른발 슈팅

22.1% 왼발 슈팅

27% 헤딩 슈팅

122 슈팅 (전체 2위)

53 유효슈팅

42 오픈플레이 유효슈팅

24 차단된 슈팅

4 코너킥 유효슈팅

2 코너킥 득점



BEST XI

GK



조현우

28경기 42실점
선방률 70% 무실점 4

경기당 1.5실점. 상대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팀에서 꾸준히 안정감을 보였다. 크로스 편칭(27), 크로스 캐칭(2) 등 측면 공격에 대한 반응에 민감했다.

DF



홍철

30경기 1득점 8도움
크로스 시도 227 도움 7

홍철의 완발은 공격 지원에서 특히 빛난다. 부지런히 공격 기회를 창출했다. 특히 오픈플레이 크로스가 110회에 달한다.

DF



리차드

28경기 1도움
패스시도 1530 클리어링 138

수비 다방면(태클, 클리어링, 공중 경합 등)에서 고른 활약을 보였다. 그러나 진짜 마력은 빌드업 능력이다. 센터백 중 네 번째로 패스를 많이 시도했다. 성공률은 80.8%에 이른다. 안정감을 유지했다.

DF



김민재

23경기 1득점
경합승률 68% 전진 패스 비율 50.9%

패스 차단, 클리어링, 태클, 공중볼 경합 등에 두루 활약했다. 시선을 끄는 건 '전진성'이다. 전진 패스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역습시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난다.

DF



이용

32경기 9도움
크로스 시도 250 크로스 성공 76

공격 지원이 정교해졌다. 크로스 시도와 성공 횟수에서 두각을 보였다. 성공 횟수 부문은 독보적 1위. 수비도 탁월했다. 측면 수비수 중 인터셉트 최대(66회), 클리어링 3위(84회)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다.

MF



네게바

36경기 5득점 7도움
돌파 시도 142, 돌파 성공률 61.3%

경쾌한 드리블과 돌파는 네게바의 상징. 돌파 시도 횟수가 리그 두 번째를 기록했다. 성공률은 가장 높았다. K리그 최고 '크랙'임을 입증했다.

MF



최영준

37경기 3득점 2도움
소유권 회복 263, 인터셉트 97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 맥을 끊어냈다. 가로채기와 소유권 회복에서 상당히 전체 1위에 올랐다. 경남 2위 신화의 '언성 히어로'였다.

MF



아길라르

35경기 3득점10도움
침투 패스 시도 15 키퍼스 105

도움 12(**Opla 기록상 12개, 전체1위)/의도한 도움(공동 1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다. 침투 패스 시도와 키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소속팀의 저조한 성적에도 개인상 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MF



로페즈

31경기 13득점 6도움
돌파 시도 175, 오픈플레이 크로스133

전북 공격포인트 1위 로페즈 진가는 '창의성'으로 두드러졌다. 개인기술과 전술을 혼합한 돌파 시도에서 단연 1위였다. 오픈플레이 크로스에서도 3위에 올랐다. 전천후 공격의 핵이었다.

FW



말깁

31경기 26득점 5도움
1골당 시간 85.7분 유효슈팅 53회

1골을 완성하는 데 9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차례라도 매 경기 골을 뽑아낸 셈이다. 골문 앞에서의 집중력도 높았다. 유효슈팅당 득점률은 49%.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두 번 중 한 번은 골망을 흔들었다.

FW



주니오

32경기 22득점 1도움
슈팅 119(전체 3위)/오픈플레이 유효슈팅 43(전체 2위)/유효슈팅 50(전체 4위)/박스 안 슈팅 비율 77.3%

간결한 볼터치와 골 결정력이 장점. 페널티박스 안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다. 박스 안 슈팅 비율 77.3%로 득점 TOP5 선수 내 가장 높은 수치였다.

K LEAGUE 2

PLAYER OF THE YEAR 나상호

2018시즌 K리그2는 나상호 천하다. 득점왕, 베스트XI(공격수)에 최우수선수(MVP) 타이틀까지 휩쓸었다. 득점왕답게 슈팅 부문에서 단연 돋보였다. 슈팅 기록은 67로 리그 통틀어 2위에 해당한다. 정확도가 높았다. 유효슈팅이 39개였다. 특히 골문 앞에서 집중력이 높았다. 박스 안에서 만든 골이 14개다. 총 득점의 87.5%에 달하는 비율이다. 동료들과의 호흡도 좋았다. 공격 1/3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70.1%다. 골문에 가까워질수록 날카로워지는 존재감을 기록으로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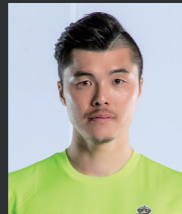


K리그2 득점 TOP5

순위	이름	팀	득점	슈팅	유효슈팅	박스 안 득점
1	나상호	광주	16	67	39	14
2	알렉스	안양	15	51	29	13
3	키쭈	대전	11	34	24	10
4	정성민	성남	10	42	28	10
5	포프	부천	10	68	33	10

BEST XI

GK



김영광

36경기 52실점
선방률 70.79% 무실점 11

FW



나상호

31경기 16득점 1도움
유효 슈팅 39, PA내 득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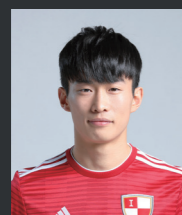
FW



키쭈

32경기 12득점 4도움
키퍼스 63, 슈팅 34

DF



김문환

26경기 3득점 1도움
키퍼스 17, 슈팅 20

DF



서보민

35경기 5득점 1도움
슈팅 80, 패스성공률 7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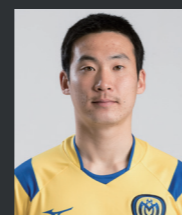
DF



윤영선

20경기 1득점
태클성공률 71.43% 인터셉트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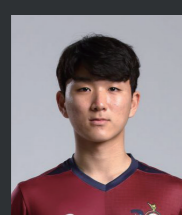
DF



이한샘

23경기 3득점
태클성공률 92.31% 클리어링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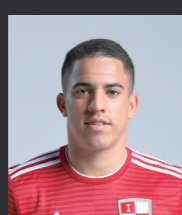
MF



황인범

25경기 3득점 3도움
패스 성공률 85.5%

MF



호물로

38경기 11득점 10도움
키퍼스 80, 전진 패스 733

MF



안현범

27경기 5득점 2도움
오픈플레이 크로스 53

MF



이명주

30경기 5득점 5도움
경합 112, 상대 진영 패스성공률 76.7%

CHAPTER

04

TEAM PROFILES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리그(38경기), K리그2 정규리그(36경기)를 기준으로 함



K LEAGUE 1

전북현대모터스



감독 최강희
정규리그 우승
38전 26승 8무 4패 75득 31실 +44

SUMMARY 무리없이 리그 2연패에 성공했다. 공격과 수비에 걸쳐 균형을 유지했다. 지난시즌보다 득점은 늘고 실점은 줄었다. 승수와 승점 관리의 효율성이 더 커졌다. 특히 라이트백 이용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볼 운 반과 관여도가 높았다. 공격과 수비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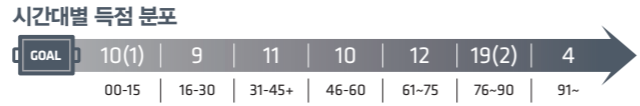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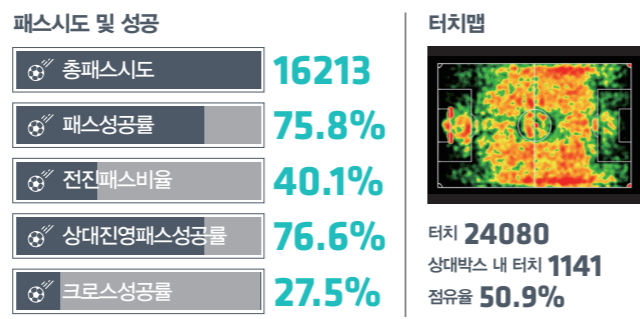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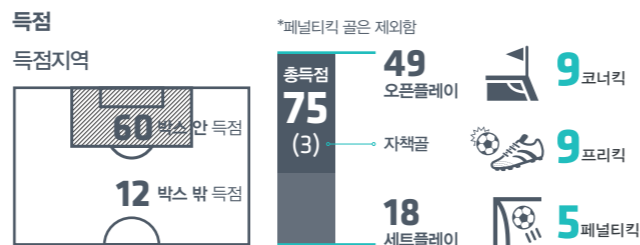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4-2-3-1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67.5%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송범근	30	2700	-18	95	-	-
	홍정남	1	90	-	1	-	-
	황병근	7	630	-13	24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민재	23	1862	1	-	3	-
	김진수	7	542	1	-	3	-
	박원재	1	90	-	-	-	-
	박원재	7	585	-	-	2	-
	박정호	1	71	-	-	-	-
	이용	32	2790	-	9	4	-
	이재성	5	291	-	-	2	1
	이주용	3	126	-	-	-	-
	조성환	5	298	-	-	2	-
	최보경	32	2661	1	1	6	-
MF	최철순	28	2520	-	-	5	-
	홍정호	25	2038	1	-	6	-
	손준호	30	2341	4	4	7	1
	신형민	28	1922	-	1	5	-
	이승기	27	2039	1	6	-	-
	이재성	17	958	4	3	-	-
	임선영	19	1366	3	2	2	-
	장윤호	12	601	-	-	1	-
	정혁	12	766	2	1	3	1
	정호영	1	90	-	-	-	-
FW	김신욱	33	2094	11	3	5	-
	나성은	3	117	-	-	-	-
	로페즈	31	2301	13	6	5	1
	아드리아노	25	1141	8	2	3	-
	이동국	35	1590	13	4	4	-
	유승민	1	45	-	-	-	-
	티아고	18	961	2	3	2	-
	한교원	23	1552	7	6	3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로페즈	13	42	11.1%
	이동국	13	51	12.3%
	김신욱	11	31	13.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이용	9	74	65.3%
	로페즈	6	66	69.5%
	이승기	6	49	72.9%

POSSESSION	이름	득점포지션	슈팅포지션	평균시간(초)
	로페즈	36	296	30.1
	이용	32	272	29.7
	김신욱	26	192	28.5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이용	106	54.5	62.3%
	최보경	56	42.9	53.8%
	김민재	47	54.5	68%

K LEAGUE 1

경남FC



감독 김종부
정규리그 2위
38전 18승 11무 9패 59득 44실 +15

SUMMARY 3년 만에 K리그1에 재입성해 돌풍을 일으켰다. 시도민 구단 가운데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은 건 경남이 사상 처음이다. 효율적인 공격이 파란의 원동력이었다. 슈팅 횟수에서는 리그 중위권이었으나, 정확도에서 2위에 올랐다. 그 중심에 26골을 터트리며 득점왕을 차지한 말경이 있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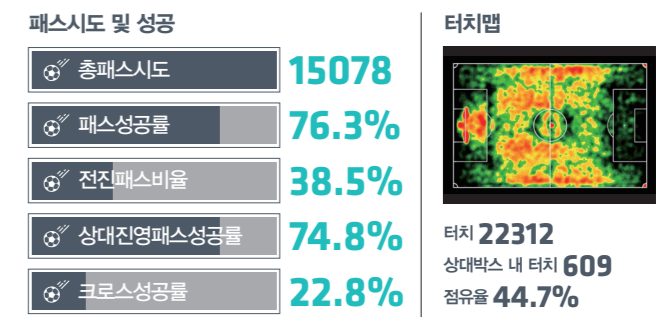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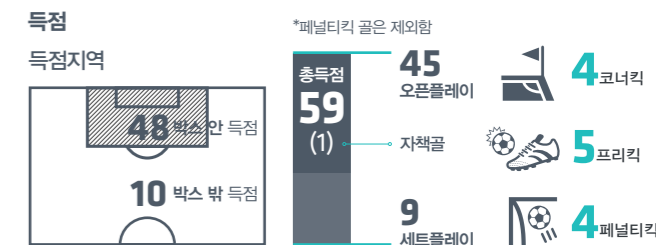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4-4-2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71.2%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손정현	25	2250	-25	89	1	-
	이범수	13	1170	-13	55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현훈	30	2555	1	-	2	-
	민준영	1	74	-	-	1	-
	박지수	33	2764	2	-	7	-
	안성남	6	301	-	-	-	-
	여성해	13	1170	-	-	2	-
	우주성	28	2501	1	2	-	-
	유지훈	13	957	-	1	-	-
	이광진	20	1729	-	2	1	-
	이재명	5	415	-	1	1	-
	최재수	25	1669	-	4	3	-
MF	권용현	7	264	-	1	-	-
	김신	9	440	-	1	-	-
	김종진	6	338	1	-	1	0
	김준범	22	1403	1	-	6	-
	네게바	36	2792	5	7	2	1
	배기종	23	709	2	1	1	-
	조영철	9	433	-	1	2	-
	조재철	16	709	3	1	1	-
	최영준	37	3096	3	2	4	-
	파울링요	23	1441	2	1	2	-
FW	하성민	24	1408	-	-	3	-
	김근환	10	223	-	1	-	-
	김효기	30	2027	7	1	3	-
	말경	31	2228	26	5	4	1
	쿠니모토	35	2486	5	2	7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말경	26	53	21.3%
	김효기	7	14	14.0%
	네게바	5	28	6.8%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네게바	7	51	63.9%
	말경	5	16	44.8%
	최재수	4	32	73.0%

POSSESSION	이름	득점포지션	슈팅포지션	평균시간(초)
	말경	35	163	24.7
	네게바	29	212	29.3
	쿠니모토	28	195	29.4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최영준	108	41.3	56.4%
	박지수	66	60.3	68.3%
	네게바	52	38.9	52.9%

K LEAGUE 1

울산현대



감독 김도훈
정규리그 3위
38전 17승 12무 9패 6득 46실 +15

SUMMARY 개막 4연패로 불안할 출발을 보였으나, 비교적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반등에 성공했다. 돋보이는 기록은 득점이다. 지난 시즌 팀 득점 9위였던 울산은 올시즌 무려 19골을 더 넣어 리그 득점 2위를 차지했다. 결정력이 빛난 결과다. 유효슈팅과 슈팅 성공률 1위가 모두 울산이었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63.5%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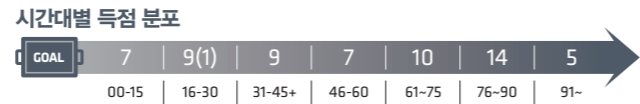
Table with player positions (GK, DF, MF, FW), names, appearances, minutes, goals, assists, cards, and suspensions.

TEAM STATS

Team statistics including goals scored (45), assists (4), total shots (61), and APT (59' 15").

Passing statistics including total passes (18620), pass accuracy (80.8%), and possession success rate (79.7%).

Touch map and statistics including total touches (25423) and possession percentage (52.6%).



PLAYER STATS

Player statistics for Goals and Assists.

Player statistics for Possession and Tackle.

K LEAGUE 1

포항스틸러스



감독 최순호
정규리그 4위
38전 15승 9무 14패 48득 49실 -1

SUMMARY 하반기 추락은 거듭되지 않았다. 지난시즌 대비 순위를 3계단 끌어올리며 4위로 시즌을 마쳤다. 포항이 상위 스플릿에 복귀 한 건 3시즌 만이다. 팀 내 최다 득점자 김승대를 비롯해 하반기 합류 선수들의 기여도가 높았다. 이석현, 이진현 등이 올린 득점이 33.3%에 달했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28회)
주 포메이션 승률 51.8%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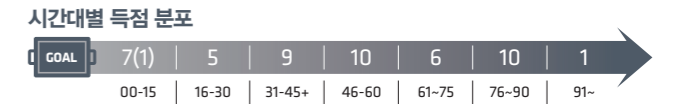
Table with player positions (GK, DF, MF, FW), names, appearances, minutes, goals, assists, cards, and suspensions.

TEAM STATS

Team statistics including goals scored (48), assists (7), total shots (48), and APT (60' 50").

Passing statistics including total passes (18432), pass accuracy (79.9%), and possession success rate (79.3%).

Touch map and statistics including total touches (25489) and possession percentage (53.0%).



PLAYER STATS

Player statistics for Goals and Assists.

Player statistics for Possession and Tackle.

K LEAGUE 1

제주유나이티드



감독 조성환

정규리그 5위

38전 14승 12무 12패 42득 42실 +0

SUMMARY 시즌 중반 1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지독한 부진을 털어내고 극적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지만,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다. 슈팅 성공률 8.5%에 그치는 등 시즌 내내 빈공에 시달린 게 컸다. 안팎으로 힘겨운 한 해였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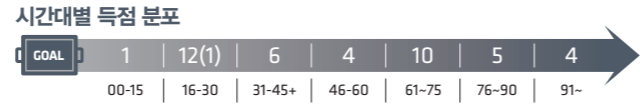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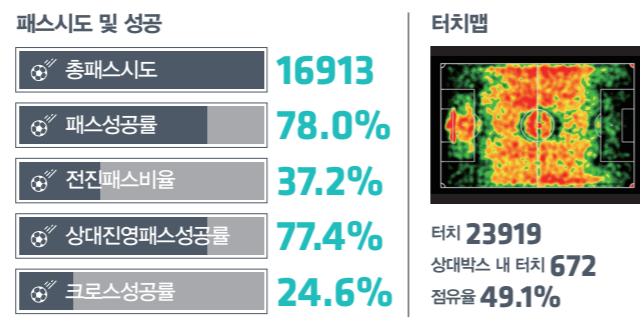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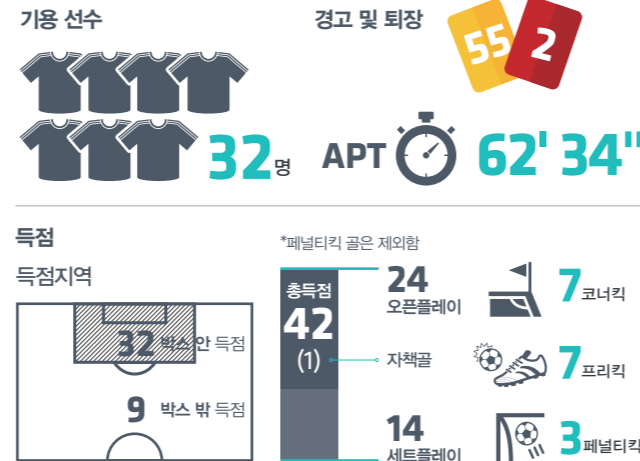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3-5-2 (9회)

주 포메이션 승률
61%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경민	2	180	-3	9	1	-	
	박한근	1	90	-	8	1	-	
	이창근	35	3150	-39	111	3	-	
DF	권한진	32	2790	3	-	4	-	
	김상원	3	66	-	-	-	1	
	김원일	20	1794	-	-	8	-	
	박진포	26	2340	-	2	3	-	
	배재우	2	117	-	-	-	-	
	알렉스	16	1155	1	-	-	-	
	오반식	24	2144	1	-	2	-	
	이광선	12	506	2	-	-	-	
	정다현	10	844	-	-	4	-	
	정태욱	5	58	-	-	1	-	
	조용형	16	1210	-	-	4	1	
	MF	권순형	29	2294	2	6	1	-
		김도엽	7	187	-	-	-	-
김상주		13	1013	1	-	1	-	
김수범		16	1351	-	-	2	-	
김현		3	101	-	-	-	-	
김현욱		22	1500	4	2	3	-	
류승우		28	1243	2	1	-	-	
이동수		28	1185	2	-	3	-	
FW	마그노	34	2542	8	2	3	-	
	이은범	9	520	-	-	1	-	
	진상욱	25	1109	2	2	1	-	
	찌아구	31	1670	8	1	1	-	
	정운	12	1080	-	2	2	-	
	호벨손	6	334	1	-	-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마그노	8	21	13.1%
	찌아구	8	28	14.5%
	이광선	4	11	10.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권순형	6	74	74.2%
	이창민	6	66	69.3%
	정운	2	49	63.4%

POSSESSION	이름	득점포제션	슈팅포제션	평균시간(초)
	권순형	16	177	32.6
	마그노	16	201	31.8
	이창민	15	180	28.9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권순형	56	46.7	56.3%
	박진포	43	64.0	64.0%
	김원일	42	47.2	52.1%

K LEAGUE 1

수원삼성블루윙즈



감독 서정원-이병근 대행-서정원

정규리그 6위

38전 13승 11무 14패 53득 54실 -1

SUMMARY 깜짝 놀랄만한 영입으로 호기롭게 맞은 시즌이었으나 결과가 뒤따라주지 않았다. 3개 대회를 병행하면서 갈수록 뒤통수를 잃었고, 끝내 '번아웃'되고 말았다. 수비가 버텨주지 못해 승점을 많이 놓쳤다. 클리어링, 인타센트, 슈팅 차단 등 수비 부문 기록이 저조한 게 그 반증이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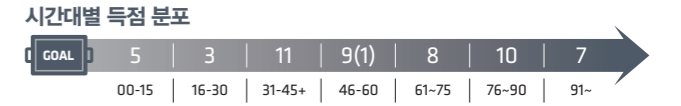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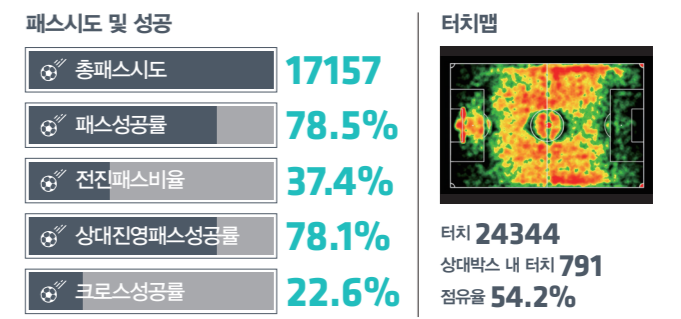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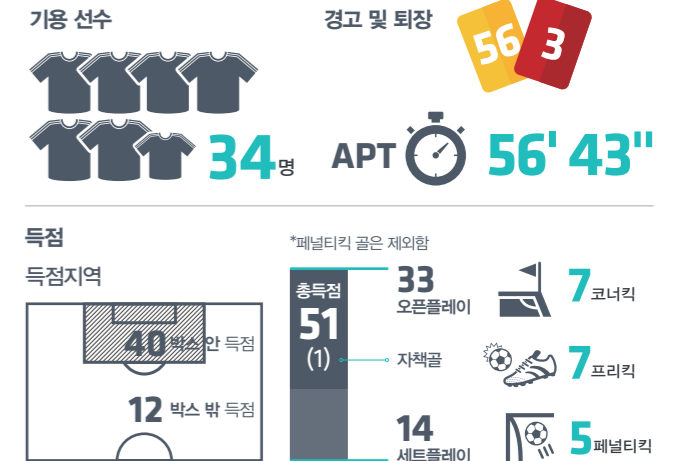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3-4-3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57.5%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선우	1	90	-4	3	-	-	
	노동건	21	1800	-33	62	-	-	
	신화용	17	1530	-17	52	-	-	
DF	곽광선	30	2338	2	-	2	-	
	구자룡	22	1038	-	-	1	-	
	매튜	4	360	-	-	1	-	
	신세계	5	450	-	-	1	-	
	양상민	10	809	1	-	-	-	
	이중성	24	1922	3	-	9	-	
	조성진	30	2550	-	-	3	-	
	최성근	20	1517	-	1	6	1	
	홍철	8	619	-	3	-	-	
	MF	김은선	10	692	-	-	-	-
		김중우	24	1372	4	1	3	-
		김준형	5	330	-	-	1	-
		박형진	7	327	-	-	1	-
박형진		19	1636	1	3	2	-	
사리치		18	1294	3	1	5	-	
윤용호		5	249	-	-	-	-	
이기제		19	1537	2	3	1	-	
FW	김건희	9	-	1	-	1	-	
	김중민	7	386	1	-	1	-	
	데안	33	2258	13	3	1	-	
	바그닝요	17	1023	7	1	1	1	
	박기동	8	410	1	2	2	-	
	염기훈	34	2136	6	4	1	-	
	유주안	14	828	2	1	-	-	
	임상협	19	995	2	1	2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데안	13	26	12.7%
	바그닝요	7	11	20.0%
	염기훈	6	19	12.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염기훈	4	59	69.2%
	박형진	3	26	69.3%
	이기제	3	23	73.1%

POSSESSION	이름	득점포제션	슈팅포제션	평균시간(초)
	데안	25	207	32.8
	염기훈	25	220	34.1
	박형진	18	123	33.3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신세계	65	50.6%	52.4%
	홍철	59	53.2%	54.1%
	장호익	55	56.5%	59.3%

K LEAGUE 1

대구FC

감독 안드레

정규리그 7위

38전 14승 8무 16패 47득 56실 -9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3-4-3 (1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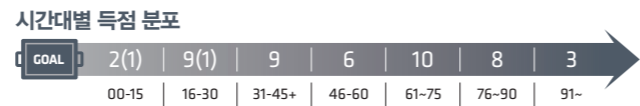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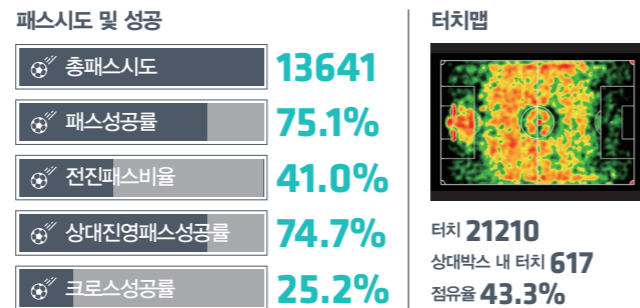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승률
44.4%

SUMMARY 잔류를 넘어 하위 스플릿 선두를 차지했다. 비교적 불안한 수비 뒤를 수문장 조현우가 든든하게 지켰고, 공격에서는 빠른 역습이 빛났다. 공격 1/3지역 패스는 12개 구단 중 최하위였으나, 돌파 성공률 1위-키 패스 횟수 2위는 대구였다. 특히 '도움왕' 세징야가 대구 선전에 큰 힘이 됐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조현우	28	2514	-42	70	-	1
	최영은	10	900	-13	39	2	-
DF	김우석	20	-	-	-	4	-
	김진혁	25	1579	1	-	4	1
	김태한	3	181	-	-	-	-
	박병현	23	1666	2	-	7	-
	오광진	4	316	-	-	2	-
	한희훈	29	2445	1	-	3	-
	홍정운	4	139	-	-	1	-
MF	강윤구	18	1483	1	1	4	-
	고승범	9	707	-	-	1	-
	고재현	12	639	-	1	-	-
	류재문	23	1948	2(-)	-	2	-
	박한민	24	988	3	-	2	-
	오후성	1	10	-	-	-	-
	이해중	1	9	-	-	-	-
	장성원	9	563	-	1	2	-
	정선호	13	367	-	-	-	-
	정승원	31	2061	4	3	3	-
FW	정우재	32	2737	1	3	3	-
	초바사	9	518	-	-	1	-
	황순민	36	2527	1	3	3	-
	김경준	9	592	1	-	1	1
	김대원	23	1506	3	5	-	-
	서재민	1	32	-	-	-	-
	세징야	25	2138	8	11	6	2
	에드가	18	1504	8	3	3	-
	임재혁	8	534	1	-	-	-
	전현철	13	362	-	-	-	-
	정치인	6	164	-	-	2	1
	조석재	6	124	-	-	-	-
조세	11	917	3	-	2	-	
지안	4	253	-	-	-	-	
카이온	5	432	-	-	1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세징야	8	39	6.7%
	에드가갈바	8	16	16.0%
	홍정운	5	10	26.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세징야	11	96	72.7%
	김대원	5	39	68.1%
	황순민	3	57	69.4%

POSSESSION	이름	득점포제션	슈팅포제션	평균시간(초)
	세징야	28	267	31.9
	김대원	19	148	30.2
	정승원	18	162	29.6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한희훈	77	57.4	58.2%
	홍정운	57	39.5	57.6%
	정우재	51	52.9	57.9%

K LEAGUE 1

강원FC

감독 송경섭-김병수

정규리그 8위

38전 12승 10무 16패 56득 60실 -4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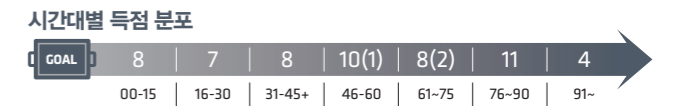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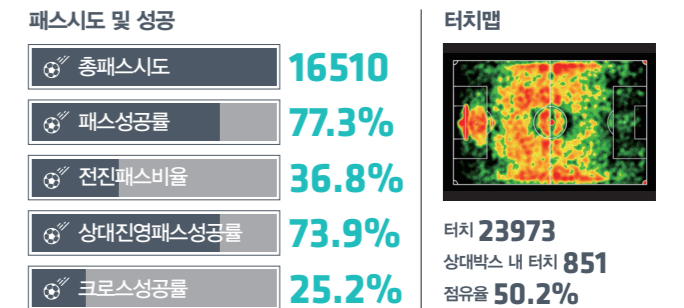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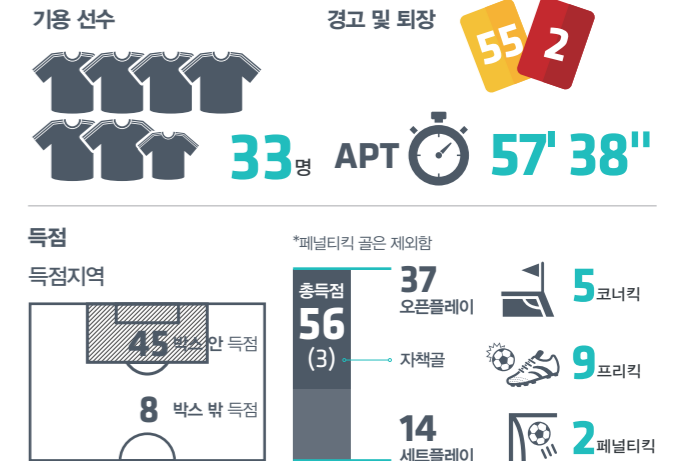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승률
50%

SUMMARY 승격 첫해 상위 스플릿 진입에 성공했지만 2018시즌에는 하위 스플릿에서 한 해를 마쳤다. 감독 교체, 이근호 이적 등 다사다난한 사건 속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버티는 힘이 됐다. 제리치와 디에고 득점이 강원 전체 득점의 55%에 달했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요준	6	436	-10	17	-	1	
	이범영	30	2622	-42	88	1	-	
	함석민	4	360	-8	14	-	-	
DF	김지훈	12	894	1	1	1	-	
	김요규	31	2790	-	1	5	-	
	박선주	8	553	1	-	-	-	
	박창준	14	1066	-	1	3	-	
	발렌티노스	32	2724	-	-	1	-	
	이재익	8	530	-	-	2	-	
	이태호	11	734	1	-	2	-	
	이훈인	3	31	-	-	-	-	
	정승용	34	2969	3	4	5	-	
	한용수	12	1080	-	-	1	-	
	MF	김승용	15	793	1	2	1	-
		김영신	9	522	-	-	-	-
남승우		1	45	-	-	-	-	
백고완		15	992	1	-	2	-	
문창진		10	252	1	-	-	-	
박정수		25	1880	1	1	8	-	
오범석		32	2817	1	1	5	-	
이민수		1	58	-	-	-	-	
이현식		27	1711	-	2	4	-	
정석화		35	2690	2	5	3	-	
FW	최진호	1	-	-	-	-	-	
	황진성	16	962	2	2	1	-	
	김경중	2	-	-	-	-	-	
	김지현	12	613	3	-	-	-	
	디에고	35	1865	7	6	4	1	
	서명원	1	26	-	-	-	-	
	이근호	13	1035	-	4	-	-	
FW	임찬율	13	563	-	2	-	-	
	정조국	25	1112	4	1	2	-	
	제리치	36	2679	24	4	4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제리치	24	46	21.4%
	디에고	7	40	8.0%
	정조국	4	23	7.8%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디에고	6	38	68.9%
	정석화	5	47	70.3%
	제리치	4	23	42.2%

POSSESSION	이름	득점포제션	슈팅포제션	평균시간(초)
	제리치	35	186	29
	정승용	28	195	32
	디에고	24	190	32.6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오범석	70	55.2%	53.3%
	정승용	65	54%	52.3%
	이현식	52	33.8%	46.2%

K LEAGUE 1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이기형-박성철 대행-에른 안데르센
정규리그 9위
38전 10승 12무 16패 55득 69실 -14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41.7%

SUMMARY '잔류왕'의 진가는 스플릿 돌입 이후 나타났다. 시즌 초반 언제 부진해나는 듯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쓸어 담으면서 생존 경쟁의 주인공이 되길 거부했다. 무고사, 문선민, 아길라르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는 인천 축구의 백미였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진형	13	1170	-27	40	1	-	
	이태희	7	630	-14	24	-	-	
	정산	18	1620	-28	60	-	-	
DF	강지용	4	213	-	-	2	-	
	곽해성	7	520	-	-	1	-	
	김대중	29	2352	-	-	2	-	
	김동민	17	1335	1	-	4	-	
	김용환	18	1219	-	-	2	-	
	김정호	12	621	-	-	1	-	
	김진아	25	1743	1	1	3	-	
	노성민	0	-	-	-	-	-	
	부노자	30	2564	1	-	-	-	
	이윤표	15	1196	1	2	3	-	
	정동윤	15	1309	1	1	3	-	
	최중환	15	1028	-	1	2	-	
	MF	고슬기	31	2669	2	2	9	-
		김동석	1	77	-	-	-	-
		남준재	14	975	4	2	2	-
박종진		15	723	1	1	-	-	
아길라르		35	2922	3	10	5	-	
윤상호		3	209	-	-	-	-	
이우혁		1	90	-	-	-	-	
이정빈		13	554	1	-	1	-	
이효균		1	27	-	-	-	-	
임은수		21	1560	1	-	6	-	
FW	최범경	1	82	-	-	1	-	
	한석중	31	2296	1	1	2	-	
	김보섭	21	931	2	1	5	-	
	김혁중	1	45	-	-	-	-	
	무고사	35	2875	19	4	5	-	
	문선민	37	2760	14	6	-	-	
	박용지	3	103	-	-	-	-	
	송시우	10	190	1	-	-	-	
조주영	1	2	-	-	-	-		
쿠비	25	1216	1	2	3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GOAL	무고사	19	56	12.8%
	문선민	14	32	18.7%
	남준재	4	7	23.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ASSIST	아길라르	10	105	67.7%
	문선민	6	55	69.9%
	무고사	4	21	45.5%

TEAM STATS

기용 선수 **34명** APT **55' 42"**

경고 및 퇴장 **63 0**

득점 **55** (패널티킥 골은 제외함)
 득점지역: **48** 박스 안 득점, **7** 박스 밖 득점

총득점 **40** 오픈플레이, **8** 코너킥, **5** 프리킥, **2** 패널티킥
 자책골 **13** 세트플레이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5737**
 패스성공률 **76%**
 전진패스비율 **40.1%**
 상대진영패스성공률 **74.2%**
 크로스성공률 **25.9%**

터치맵
 터치 **22860**
 상대박스 내 터치 **680**
 점유율 **49.3%**

시간대별 득점 분포
 GOAL: 13 | 9 | 6 | 9 | 7 | 10 | 1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K LEAGUE 1

상주상무

감독 김태환
정규리그 10위
38전 10승 10무 18패 41득 52실 -11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1-4-1 (22회)
주 포메이션 승률
36.4%

SUMMARY 잦은 선수 변동의 한계는 반복됐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를 2시즌 연속 치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불리한 상황 속 치른 서울전에서 행운의 득점이 터졌다. 승점 3점에, 득점 하나를 더한 상주는 다득점에서 앞서 10위로 잔류를 확정 지었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권태환	2	155	-2	6	-	-	
	유상훈	13	1170	-15	-	2	-	
	윤보상	15	1285	-25	40	1	-	
	최필수	9	810	-10	22	1	-	
	이민기	6	540	-	-	2	-	
DF	고태원	4	52	-	-	2	-	
	권완규	12	1080	1	-	1	-	
	김경재	8	645	-	1	1	-	
	김남춘	19	1591	1	-	-	-	
	김영민	18	1497	-	-	3	-	
	김태환	21	1797	2	1	1	-	
	백동규	18	1104	-	-	3	-	
	신세계	22	1975	-	-	5	-	
	윤영선	3	270	-	-	-	-	
	이광선	21	1478	2	1	2	-	
	이민기	6	540	-	-	2	-	
	이태희	9	740	1	1	2	-	
	임채민	17	1523	2	-	3	-	
	홍철	22	1915	1	5	1	-	
	MF	김경중	11	399	-	-	1	-
		김민우	36	2973	2	1	1	-
		김진환	12	489	-	-	2	-
		마상훈	1	18	-	-	-	-
		송수영	7	152	-	-	-	-
		송시우	12	601	1	-	-	-
		신창무	22	731	1	2	2	-
		심동운	31	2180	8	-	2	-
안진범		3	216	-	-	-	-	
여름		11	950	-	1	-	-	
윤빛가람		33	2831	7	3	2	-	
FW	이규성	12	893	-	1	1	-	
	이상현	5	228	-	-	1	-	
	이종원	3	100	-	-	-	-	
	조수철	1	79	-	-	1	-	
	차영환	5	291	-	-	1	-	
	김도형	21	1285	4	3	3	-	
	김호남	21	1241	2	1	1	-	
	박대환	3	155	-	-	-	-	
박용지	11	905	4	1	2	-		
윤주태	8	176	-	1	-	-		
주민규	11	792	4	-	-	-		
최진호	7	284	-	-	-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GOAL	심동운	8	24	13.1%
	윤빛가람	7	17	12.7%
	주민규	4	11	14.8%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ASSIST	홍철	5	42	70.9%
	윤빛가람	3	38	75.4%
	김도형	3	19	62.8%

TEAM STATS

기용 선수 **41명** APT **56' 44"**

경고 및 퇴장 **54 0**

득점 **41** (패널티킥 골은 제외함)
 득점지역: **36** 박스 안 득점, **5** 박스 밖 득점

총득점 **25** 오픈플레이, **6** 코너킥, **5** 프리킥, **5** 패널티킥
 자책골 **11** 세트플레이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6175**
 패스성공률 **78.2%**
 전진패스비율 **37.4%**
 상대진영패스성공률 **77.8%**
 크로스성공률 **21.5%**

터치맵
 터치 **22782**
 상대박스 내 터치 **672**
 점유율 **49.2%**

시간대별 득점 분포
 GOAL: 2 | 5 | 5 | 10 | 6 | 11 | 2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K LEAGUE 1

FC서울

감독 황선홍-이을용 대행-최용수
정규리그 11위
38전 9승 13무 16패 40득 48실 -8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18회)
주 포메이션 승률
41.7%

SUMMARY 차원의 2018시즌이었다. 불과 2년 전 정상에 섰던 서울은 창단 후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렀다. 다음 시즌도 K리그 한자리를 예약하는 데 성공했지만, 올시즌 보여준 공격력은 고심을 안겨줄 만하다. 리그 최저 득점은 물론 모든 공격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양한빈	37	3330	-46	131	-	-
	유상훈	1	90	-2	30	-	-
DF	곽태휘	14	1117	1	-	-	-
	김남준	8	697	-	-	1	-
	김동우	17	1513	1	1	2	-
	김원균	24	2153	1	-	7	-
	박동진	15	1222	-	-	5	-
	신광훈	18	1599	-	2	4	-
	심상민	16	1229	-	-	1	-
	윤석영	22	1922	1	3	5	-
MF	이웅희	11	860	-	-	2	-
	황현수	14	1171	-	-	1	-
	고요한	32	2658	8	4	7	1
	김성준	11	800	1	-	-	-
	김우홍	1	1	-	-	-	-
	김원식	11	591	-	-	1	-
	김한길	12	471	1	-	2	-
	송진형	6	262	1	-	-	-
FW	신진호	34	2709	2	4	8	1
	윤종규	5	450	-	-	-	-
	이상호	23	1305	2	1	2	-
	정원진	1	27	-	-	-	-
	정현철	14	926	-	-	3	-
	하대성	8	509	-	-	2	-
	황기욱	19	1506	-	-	4	-
	마티치	9	490	1	-	-	1
	박주영	20	959	3	-	1	-
	박희성	11	541	1	-	2	-
안델손	30	2351	6	4	5	-	
에반드로	30	1475	3	2	1	-	
윤승원	10	228	-	-	-	-	
윤주태	7	439	2	-	-	-	
이석현	3	95	-	-	-	-	
조영욱	30	1680	3	2	1	-	
코바	5	117	-	-	-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67 3**

35명 APT **57' 37"**

득점 득점지역 **총득점 40 (2)** *패널티킥 골은 제외함

- 오픈플레이 25
- 자책골 5
- 세트플레이 10
- 코너킥 5
- 프리킥 5
- 패널티킥 3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7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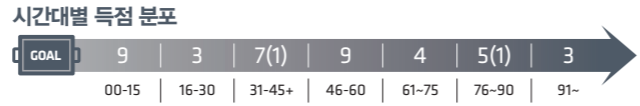
패스성공률 80%

전진패스비율 34.5%

상대진영패스성공률 79.3%

크로스성공률 24.1%

터치맵 **터치 24774**
상대박스 내 터치 **724**
점유율 **53.5%**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고요한	8	12	20.5%
	안델손	6	39	6.6%
	에반드로	3	17	6.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신진호	4	58	77.4%
	고요한	4	38	74.5%
	안델손	4	19	65%

POSSESSION	이름	득점포지션	슈팅포지션	평균시간(초)
	고요한	24	176	36.4
	윤석영	18	133	38.1
	안델손	18	158	36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신진호	73	56.8	48.1%
	김원균	55	62.7	51.6%
	고요한	43	39.7	40.1%

K LEAGUE 1

전남드래곤즈

감독 유상철-김인완 대행
정규리그 12위
38전 8승 8무 22패 43득 69실 -26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33.3%

SUMMARY 기적은 없었다. 김인완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나 결국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창단 24년 만에 첫 강등이자 기업 구단의 첫 자동 강등이다.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리그 최하 실점(69골)을 했으니 이기기 힘든 게 당연했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대환	5	450	-12	19	-	-
	장대회	5	450	-13	18	-	-
	이호승	28	2520	-44	76	-	-
DF	가솔현	26	2180	-	-	3	-
	고태원	1	90	-	-	-	-
	김경재	2	180	-	-	-	-
	김민준	7	537	-	-	1	-
	도나치	11	904	-	-	3	-
	박대환	5	232	1	-	-	-
	양준아	24	1946	-	-	5	-
	이경렬	4	360	1	1	-	-
	이슬찬	28	2248	-	2	4	1
	이유현	28	1822	-	2	2	-
	이지남	18	1497	2	-	2	-
	최재현	25	1457	5	2	4	1
	최호진	12	997	-	-	1	-
	토미	2	96	-	1	-	-
	허재원	15	1301	-	-	3	-
MF	김선우	14	1034	-	-	2	-
	김영욱	33	2476	3	2	1	-
	김평래	2	46	-	-	-	-
	박광일	13	1012	-	-	-	-
	유고비치	27	2183	1	-	3	-
	이상현	21	1007	5	2	4	-
	한승욱	3	242	-	-	-	-
	한찬희	31	2282	2	6	6	1
	김경민	20	948	1	-	1	-
	마세도	24	1364	7	2	3	-
FW	박준태	8	501	-	-	-	-
	백승현	1	24	-	1	-	-
	원델손	33	2734	4	5	3	1
	윤동민	13	553	-	-	1	-
	전지현	5	148	-	-	-	-
	허태균	8	492	-	-	1	-
	허용준	23	1210	9	2	2	-
	한창우	4	38	-	-	-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55 4**

36명 APT **62' 36"**

득점 득점지역 **총득점 43 (2)** *패널티킥 골은 제외함

- 오픈플레이 26
- 자책골 6
- 세트플레이 14
- 코너킥 8
- 프리킥 6
- 패널티킥 1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6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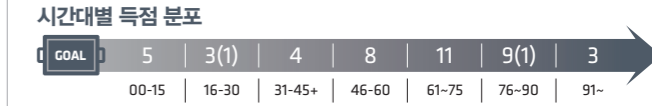
패스성공률 79%

전진패스비율 36.2%

상대진영패스성공률 80.5%

크로스성공률 27.2%

터치맵 **터치 24130**
상대박스 내 터치 **644**
점유율 **49.7%**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허용준	9	22	17.3%
	마세도	7	22	13%
	이상현	5	9	17.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공격1/3지역패스성공률%
	한찬희	6	53	70.4%
	원델손	5	58	73.5%
	김영욱	2	49	70.8%

POSSESSION	이름	득점포지션	슈팅포지션	평균시간(초)
	원델손	21	250	34.1
	한찬희	18	226	32.5
	김영욱	17	214	33.5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률%	경합승률%
	원델손	76	47.5	46.8
	이유현	59	52	46.5
	김영욱	54	53.8	51.9

K LEAGUE 2

아산무궁화축구단



감독 박동혁
정규리그 우승
36전 21승 9무 6패 54득 27실 +27

SUMMARY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었다. 아산이 증명했다.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의 영광을 안았다.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한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명주, 주세종 등 국가대표급 미드필더들의 안정적인 패스로 점유율도 높았다. 그만큼 상대를 지배했다는 뜻이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72.7%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주원	14	1440	-12	44	1	-
	박형순	17	1530	-14	45	-	-
	양형모	4	360	-5	4	-	-
	최봉진	1	90	-	4	-	-
DF	구대영	14	1091	1	-	8	-
	김동철	18	1474	-	-	1	-
	김봉래	2	141	-	-	-	-
	김상필	3	61	-	-	-	-
	김준수	6	289	-	1	-	-
	민상기	27	2430	-	-	8	-
	이용	2	91	-	1	-	-
	이은동	2	180	-	1	1	-
	이한샘	23	1821	3	-	7	-
	MF	김도혁	15	1215	1	-	3
김동진		12	1080	-	-	3	-
김민균		18	710	4	-	2	-
김선민		2	103	-	-	-	-
김영남		3	177	-	-	1	-
김종국		30	2502	1	2	4	-
박선용		3	154	-	-	-	-
서용덕		4	184	-	-	-	-
안현범		27	1762	5	2	2	-
이명주		30	2527	5	5	5	-
이주용		19	1662	1	-	4	-
임창용		15	1205	-	-	3	-
임창균		4	123	2	-	1	-
조범석		5	150	-	1	-	-
FW	조성준	24	1571	4	6	3	1
	주세종	19	1536	4	6	3	1
	허범산	8	240	1	-	2	-
	황인범	18	1750	1	2	2	-
	고무열	30	2477	6	3	8	-
	김륜도	13	410	3	1	2	-
	김부관	1	90	-	-	-	-
	김현	20	1057	1	2	4	-
	박세직	20	1116	1	4	-	-
	한의권	16	1131	7	1	5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83 2

골대맞힘: 14

유효슈팅: 155

슈팅전체: 495

득점: 54

슈팅성공률: 15%

득점지역

박스 안 득점: 44

박스 밖 득점: 10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71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225

공격지역 진입

페널티박스진입: 1137

공격1/3진입: 2942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7762

상대진영패스성공률: 73.2%

패스성공률: 78.6%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0%

키패스: 380

상대진영패스시도: 10913

APT: 55' 05"

시간대별 득점

GOAL: 5(1) | 8 | 11 | 10 | 7 | 10 | 3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한의권	7	16	24.1%
	고무열	6	16	18.2%
	안현범	5	19	12.2%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조성준	6	27	112
	이명주	5	43	397
	박세직	4	18	124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민상기	1470	84.9%	74.3%
	김종국	1428	81.7%	75.2%
	이명주	1395	82.4%	76.7%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김종국	58	36	62%
	이명주	53	37	69.8%
	이주용	48	26	54.2%

K LEAGUE 2

성남FC



감독 남기일
정규리그 2위
36전 18승 11무 7패 49득 36실 +13

SUMMARY 초반 기세가 좋았다. 개막 1경기 무패(7승 4무)를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으나 후반기 부진에 발목 잡혔다. 고른 득점 분포는 고무적이었다. 정성민과 에델, 서보민, 최병찬 등 공격수들이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골을 넣어 무득점 경기가 6회(리그2 최소 기록)에 불과했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9회)
주 포메이션 승률
61.1%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근배	23	1892	-23	40	1	-
	김동준	6	538	-3	12	-	-
	전종혁	8	720	-6	17	1	-
	황인재	1	90	-4	3	-	-
DF	김재봉	9	669	-	-	2	-
	문지환	6	287	-	-	-	-
	박태민	7	524	-	-	2	-
	연제운	29	2524	2	1	2	-
	오르슬리치	2	235	-	-	-	-
	윤영선	17	1507	1	-	2	-
	이다원	16	525	-	1	-	-
	이시영	4	101	-	-	-	-
	이학민	9	416	-	-	-	1
	이학민	32	2801	-	4	2	-
	임채민	10	810	-	-	-	-
	조성욱	11	417	-	-	3	-
	최준기	21	1739	-	-	5	-
	MF	김민혁	12	1276	2	1	2
김정현		30	2646	2	1	5	-
무랄라		11	648	3	-	3	-
문상윤		34	2655	4	7	-	-
본즈		8	675	-	-	1	-
서보민		35	2879	5	1	1	-
임대준		1	88	-	-	-	-
주현우		31	1903	2	1	2	-
최병찬		19	1355	5	2	3	-
FW		김도엽	13	682	1	2	1
	김동희	3	13	-	-	2	-
	김소용	4	40	-	-	1	-
	에델	28	1832	7	2	5	-
	이정태	1	1	-	-	-	-
	이현일	14	456	4	1	-	-
정성민	23	1499	10	-	4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51 7

골대맞힘: 8

유효슈팅: 164

슈팅전체: 515

득점: 49

슈팅성공률: 13%

득점지역

박스 안 득점: 36

박스 밖 득점: 13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67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248

공격지역 진입

페널티박스진입: 1263

공격1/3진입: 2564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4020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6.2%

패스성공률: 71.4%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19.1%

키패스: 348

상대진영패스시도: 8868

APT: 54' 48"

시간대별 득점

GOAL: 4 | 8 | 7 | 6 | 11 | 10 | 3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정성민	10	22	23.8%
	에델	7	26	14.6%
	서보민	5	20	8.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문상윤	7	73	346
	이학민	4	35	601
	최병찬	2	26	53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김정현	1383	77.9%	71.7%
	이학민	1295	71.8%	65.6%
	연제운	1196	78.9%	66.7%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이학민	87	66	75.9%
	김정현	57	36	63.2%
	에델	39	25	64.1%

K LEAGUE 2

부산아이파크

감독 최윤겸
정규리그 3위
36전 14승 14무 8패 53득 35실 +18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60%

SUMMARY 승격 문턱에서 좌절했다. 그러나 2018년 부산은 흥집을 데...
공격력을 보여줬다. 고경민, 김진규, 김문환, 한지호가 구...
축한 공격진은 K리그2 최고였다. 중심에 호물로가 있었다. 전방위 활약으로 공격 포...
인트는 물론 패스, 태클 부문에서도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SQUAD

Table with columns: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Rows for GK, DF, MF, FW.

TEAM STATS

Team stats infographic including: 기용 선수 (34), 경고 및 퇴장 (56/3), 득점 (53), 슈팅전체 (496), 슈팅성공률 (14%), 득점지역 (43 박스 안 득점, 10 박스 밖 득점), 공격지역 진입 (1064 페널티박스진입, 2449 공격1/3진입),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6346,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8.4%, 패스성공률 75.7%,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1%), APT 56' 24".

PLAYER STATS

Player stats tables for GOAL and ASSIST.

Player stats tables for PASS and TACKLE.

K LEAGUE 2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정규리그 4위
36전 15승 8무 13패 47득 44실 +3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14회)
주 포메이션 승률 60.7%

SUMMARY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기용했다. 그러나 대전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 않았다. 높은 외국인 선수 의존도와 측면 위주...
공격을 유지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크로스, 헤딩 등 지표에서 전부 리그 1...
위를 차지했다. 후반기 합류해 골문을 든든히 지킨 박준혁의 존재감도 빼놓을 수 없었다.

SQUAD

Table with columns: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Rows for GK, DF, MF, FW.

TEAM STATS

Team stats infographic including: 기용 선수 (46), 경고 및 퇴장 (69/2), 득점 (47), 슈팅전체 (437), 슈팅성공률 (14%), 득점지역 (42 박스 안 득점, 5 박스 밖 득점), 공격지역 진입 (1071 페널티박스진입, 2563 공격1/3진입),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3736,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5.1%, 패스성공률 71.1%,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6.2%), APT 52' 21".

PLAYER STATS

Player stats tables for GOAL and ASSIST.

Player stats tables for PASS and TACKLE.

K LEAGUE 2

광주FC

감독 박진섭
정규리그 5위
36전 11승 15무 10패 51득 41실 +10



SUMMARY 강등 처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미드필더들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패스 수치에서 대부분 리그 최하위였다. 특히 패스 시도는 1위 아산과 비교해 5천 개 이상 차이가 났다.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왕' 나상호의 존재감이 빛을 발했다. 팀내 가장 많은 득점과 유효 슈팅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13회)
주 포메이션 승률
46.2%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윤보상	7	630	-7	22	-	-
	윤평국	23	2070	-25	76	-	-
	제종현	6	540	-9	21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진환	5	331	-	-	1	-
	김태윤	16	1305	-	-	2	-
	박요한	27	2194	-	3	1	-
	안영규	35	3019	1	-	1	-
	왕건명	3	258	-	-	1	-
	이민기	11	916	-	-	2	-
	이오름	10	935	-	4	-	-
	이인규	9	174	-	1	1	-
	이한도	23	1747	1	1	4	1
	정다훈	1	16	-	-	-	-
	정동윤	2	29	-	-	-	-
	정준연	21	1594	-	-	1	-
	홍준호	1	14	-	-	-	-
MF	김동현	35	3091	3	5	5	-
	류연재	1	1	-	-	-	-
	미노리	12	791	-	-	1	-
	본즈	3	197	-	-	-	-
	여름	8	682	1	1	-	-
	여봉훈	26	1909	-	1	7	-
	이승모	9	303	1	1	1	-
FW	임민혁	27	1688	2	2	2	-
	최준혁	12	787	1	1	3	-
	김민규	13	321	1	-	-	1
	김시우	1	6	-	-	-	-
	김정환	25	1346	4	3	1	-
	나상호	31	2734	16	1	3	-
	두아르테	14	1095	6	3	-	-
FW	두현석	26	1395	2	3	3	-
	부야	6	311	1	-	-	-
	장성현	1	8	-	-	-	-
	정영총	25	1639	4	-	5	-
	지우	8	427	-	1	-	-
	펠리페	14	1143	7	2	6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52** | 득점 **51** | 유효슈팅 **180** | 슈팅전체 **493** | 슈팅성공률 **14%**

득점지역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72**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221**

공격지역 진입
1277 페널티박스진입
2569 공격1/3진입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2315** |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1.2%**
패스성공률 **67.7%** |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2.4%**
키패스 **352**
상대진영패스시도 **8021** | APT **55' 51"**

시간대별 득점
GOAL | 7 | 9 | 9 | 6 | 6 | 6 | 8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GOAL	나상호	16	39	23.9%
	펠리페	7	15	23.3%
	두아르테	6	15	21.4%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ASSIST	김동현	5	29	586
	이오름	4	22	184
	두현석	3	27	160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PASS	안영규	1399	70.4%	59%
	김동현	1345	69.3%	62.8%
	이한도	707	70.3%	52.6%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TACKLE	김동현	89	62	69.7%
	박요한	48	30	62.5%
	정준연	46	32	69.6%

K LEAGUE 2

FC안양

감독 고정운
정규리그 6위
36전 12승 8무 16패 44득 50실 -6



SUMMARY 알렉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력이 바뀌었다. 팀 득점 3분의 1을 혼자 책임졌다. 개인에 무게를 실는 전술 영향도 있었다. 실제로 안양은 드리블 돌파와 역습에서 독보적 리그 1위였다. 후반에만 28골을 넣은 집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4-2 (10회)
주 포메이션 승률
35%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양동원	1	90	-1	3	-	-	
	전수현	32	2880	-41	85	-	-	
	정민기	3	270	-8	7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영찬	31	2736	-	1	6	-	
	김진래	24	2008	1	2	4	-	
	김태호	10	819	-	1	3	-	
	김형진	23	1618	-	-	2	-	
	유연승	5	367	-	1	3	-	
	이상용	13	1152	2	-	1	-	
	채광훈	30	2566	-	4	1	1	
	최호정	25	2159	-	1	5	1	
	MF	김경준	18	1080	3	3	1	-
		김대욱	1	45	-	-	-	-
		김원민	25	1657	4	3	1	-
		문준호	5	159	1	-	-	-
		안진범	9	760	-	-	1	-
은성수		11	838	1	-	-	-	
이동경		10	149	-	-	-	-	
FW	장은규	5	229	-	-	1	-	
	주현재	1	90	-	-	-	-	
	최승호	1	1	-	-	-	-	
	최재훈	27	2021	2	2	6	-	
	홍승현	5	273	-	-	-	-	
	김신철	20	244	2	-	1	-	
	김영도	14	960	-	1	2	-	
	김현규	4	159	-	-	2	-	
	김희원	4	145	-	-	-	-	
	마르코스	33	2887	2	1	5	-	
	박성진	7	365	-	-	-	-	
	브루노	11	623	-	-	1	-	
	알렉스	28	2112	15	3	2	-	
정재희	30	1455	1	1	1	-		
정희웅	33	2579	6	3	2	-		

TEAM STATS

기용 선수

경고 및 퇴장 **51** | 득점 **44** | 유효슈팅 **140** | 슈팅전체 **410** | 슈팅성공률 **14%**

득점지역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15**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199**

공격지역 진입
973 페널티박스진입
2400 공격1/3진입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2804** |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1.5%**
패스성공률 **68.7%** |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18.8%**
키패스 **287**
상대진영패스시도 **7582** | APT **53' 04"**

시간대별 득점
GOAL | 2 | 5 | 9(2) | 11(1) | 7 | 7 | 3(1)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GOAL	알렉스	15	29	29.4%
	정희웅	6	19	18.8%
	김원민	4	9	14.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ASSIST	채광훈	4	31	520
	알렉스	3	38	158
	김원민	3	23	215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PASS	마르코스	1194	72.4%	61.6%
	김영찬	1111	73%	62.7%
	채광훈	1005	63.2%	54.9%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TACKLE	마르코스	88	60	68.2%
	채광훈	71	46	64.8%
	정희웅	58	41	70.7%

K LEAGUE 2

수원FC

감독 김대의
정규리그 7위
36전 13승 3무 20패 29득 46실 -17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3-3 (10회)
주 포메이션 승률
65%

SUMMARY 결정력 보완 수제를 끝내 풀지 못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유일하게 없는 팀이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부정확한 슈팅이 문제였다. 슈팅 수는 중위권이었지만, 슈팅 성공률이 리그 최하위였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다솔	29	2565	-27	102	2	-
	박형순	3	225	-5	7	-	-
	이상욱	5	450	-14	18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대호	7	541	1	-	2	-
	김민제	2	167	-	-	-	-
	김범용	27	2278	-	-	4	1
	김창훈	6	436	-	-	1	-
	레이어	9	781	-	-	3	-
	마상훈	9	692	-	-	2	-
	박세진	20	1353	1	-	4	-
	이한빈	5	196	-	-	-	-
	임하람	4	220	-	-	1	-
	조병국	13	1108	-	-	-	-
	채선일	1	2	-	-	-	-
	황도연	16	1343	-	-	-	-
	MF	권용현	12	384	-	-	2
김종국		2	157	-	-	-	-
김철호		3	195	-	-	-	-
배신영		5	343	-	-	1	-
배지훈		9	689	1	-	1	-
백성동		30	2260	5	1	3	-
브루노		21	1206	1	2	-	-
알렉스		30	2499	5	1	4	-
이광진		11	789	-	-	3	-
이상민		12	839	-	-	2	-
이승현		32	2175	-	1	1	-
이종원		1	90	-	-	-	-
장성재		11	496	-	1	-	-
정훈	8	652	-	-	-	-	
조상범	10	831	-	1	-	-	
조유민	26	2283	-	-	8	1	
최원철	12	720	-	-	1	-	
한상운	11	593	-	-	-	-	
FW	김동찬	9	339	1	-	1	-
	마테우스	13	917	2	-	4	-
	모재현	20	1160	1	1	2	-
	민현홍	4	360	-	-	3	-
	비아나	15	1157	6	-	5	-
	서동현	10	369	-	3	1	-
	이재안	14	1580	2	1	2	-
정우근	14	751	2	-	-	-	

TEAM STATS

기용 선수
41

경고 및 퇴장 **63** 2

골대맞힘 **15** 유효슈팅 **150** 슈팅전체 **474**

득점지역: 박스 안 득점 **22**, 박스 밖 득점 **7**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44**,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231**

공격지역 진입: 페널티박스진입 **1157**, 공격1/3진입 **2524**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4112**,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4.2%**, 패스성공률 **71.9%**,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4%**, 키패스 **346**, 상대진영패스시도 **8366**, APT **53' 28"**

시간대별 득점: GOAL 5 | 5(1) | 5 | 1 | 4 | 6 | 3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비아나	6	19	18.2%
	알렉스	5	21	10.4%
	백성동	5	19	9.8%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서동현	3	8	36
	브루노	2	28	102
	백성동	1	38	155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김종국	1428	81.7%	75.2%
	조유민	1196	69.6%	57.6%
	김범용	1148	68.5%	55.8%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김범용	77	57	74%
	알렉스	71	47	66.2%
	김종국	58	36	62.1%

K LEAGUE 2

부천FC

감독 정갑석, 조민혁 대행
정규리그 8위
36전 11승 6무 19패 37득 50실 -13



TEAM FORMATION



주 포메이션
4-2-3-1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37.5%

SUMMARY 2013년 K리그2 출범 이후 최고의 출발을 했다. 전무후무한 개막 5연승으로 전반기 돌풍을 일으켰다. 벤치 멤버들의 미진한 활약이 뼈아팠다. 포프, 문기한 등 핵심이 막히면 재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 수비에서는 닐손주니어가 리그 최다 태클을 시도하며 고군분투했다.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기현	2	180	-4	7	-	-	
	이영창	4	360	-7	10	-	-	
	최철원	30	2700	-39	101	-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재우	1	90	-	-	-	-	
	김준엽	31	2781	1	3	2	-	
	명성준	2	58	-	-	1	-	
	박건	25	2047	-	-	2	-	
	안태현	35	3150	-	2	4	-	
	임동혁	33	2919	2	1	4	1	
	장순혁	17	1056	-	-	2	2	
	정준현	20	1477	-	-	1	-	
	정택훈	2	41	-	-	1	-	
	크리스토포	9	658	2	-	1	-	
	MF	김지호	7	129	-	-	1	-
		남송	3	146	-	-	1	-
		닐손주니어	28	2417	2	1	1	-
문기한		34	2865	-	5	5	-	
송홍민		17	891	-	1	2	1	
이정찬		26	880	1	1	3	-	
이현승		32	2287	1	1	3	-	
FW	추민열	5	381	-	-	-	-	
	황진산	13	427	-	-	1	-	
	공민현	24	1907	6	3	8	-	
	김동현	7	275	-	1	-	-	
	이광재	28	1379	3	-	2	-	
	이혁주	1	7	-	-	-	-	
	진창수	31	1355	7	2	2	-	
포프	30	2459	10	2	3	-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포프	10	33	14.7%
	진창수	7	21	16.3%
	공민현	6	22	16.7%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문기한	5	67	638
	김준엽	3	37	452
	공민현	3	33	113

TEAM STATS

기용 선수
29

경고 및 퇴장 **50** 3

골대맞힘 **15** 유효슈팅 **152** 슈팅전체 **473**

득점지역: 박스 안 득점 **30**, 박스 밖 득점 **7**
박스 안 슈팅(차단 포함) **239**, 박스 밖 슈팅(차단 포함) **236**

공격지역 진입: 페널티박스진입 **1121**, 공격1/3진입 **2735**

패스시도 및 성공: 총패스시도 **13478**, 상대진영패스성공률 **63.4%**, 패스성공률 **69.3%**, 오픈플레이 크로스성공률 **21.1%**, 키패스 **339**, 상대진영패스시도 **8373**, APT **55' 01"**

시간대별 득점: GOAL 5 | 3 | 4(1) | 5 | 10 | 7(1) | 3 (00-15 | 16-30 | 31-45+ | 46-60 | 61-75 | 76-90 | 91-)

K LEAGUE 2

안산그리너스



감독 이홍실, 이영민 대행, 임완섭
정규리그 9위
36전 10승 9무 17패 32득 45실 -13

SUMMARY 외국인 선수들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지난해 말경과 득점왕 경쟁한 라울은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쉬었다. 새로 영입한 코네와 피델의 활약도 부족했다. 장혁진의 화려 지원도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았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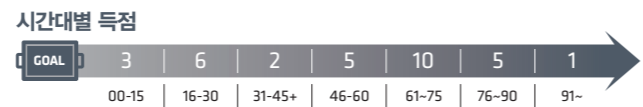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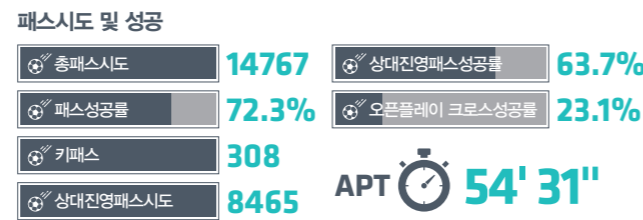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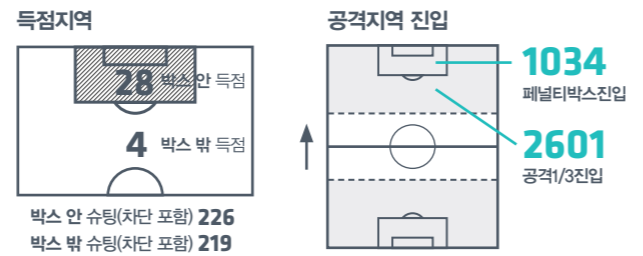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3-4-2-1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59.1%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형민	1	90	-4	9	-	-	
	이희성	17	1414	-19	51	2	-	
	황성민	20	1736	-22	50	1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연수	18	1367	-	-	-	-	
	박준희	31	2704	2	2	4	-	
	송주호	17	1110	1	-	3	-	
	이건	20	1678	3	1	5	-	
	이인재	29	2530	1	-	3	-	
	최명희	30	2406	1	1	3	1	
	최성민	17	1378	-	-	2	-	
	황태현	2	149	-	1	-	-	
	MF	김명재	3	245	-	-	-	-
		김태현	18	1037	-	2	2	-
김현태		13	1022	2	-	-	-	
박진섭		26	2064	2	-	5	-	
신일수		27	2223	1	-	6	1	
장혁진		34	2722	3	8	1	-	
조우진		11	410	-	-	-	-	
한지원		13	751	-	1	4	-	
FW		김종석	17	1050	-	2	1	-
		라울	18	926	3	1	-	1
	박관우	16	418	1	-	2	-	
	박성부	4	88	-	-	-	-	
	이민우	2	93	-	-	-	-	
	이창훈	11	666	1	1	1	-	
	정기운	4	129	-	-	-	-	
	최호주	24	1932	7	1	1	-	
	코네	26	1471	2	-	3	-	
	피델	7	276	-	1	-	-	
한건용	4	148	-	-	-	-		
홍동현	20	1236	2	1	1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최호주	7	15	22.6%
	라울	3	11	13.6%
	이건	3	10	1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장혁진	8	74	424
	박준희	2	19	585
	김종석	2	19	110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이인재	1356	78.6%	66%
	박준희	1319	73.2%	62%
	장혁진	1265	76.7%	68%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최명희	71	49	69%
	박준희	59	42	71.2%
	장혁진	54	35	64.9%

K LEAGUE 2

서울이랜드FC



감독 인창수
정규리그 10위
36전 10승 7무 19패 30득 52실 -22

SUMMARY 서울이랜드가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소극적인 플레이가 아쉬웠다. 특히 공격에서 그랬다. 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아꼈고,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슈팅 관련 수치에서 가장 밑에 머물렀다. 크로스나 세트피스 활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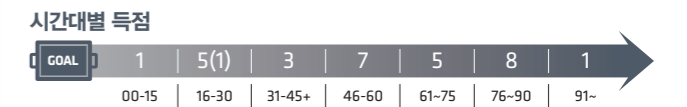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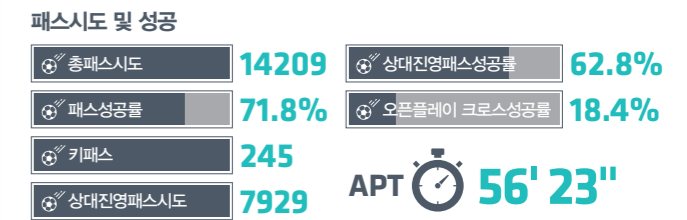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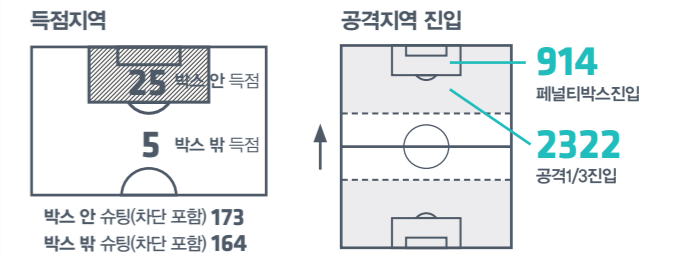


주 포메이션
4-2-3-1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45.5%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영광	36	3240	-52	127	1	-	
	최오백	4	2816	4	3	4	-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득점	도움	경고	퇴장	
DF	김한솔	13	815	-	-	-	-	
	김동철	3	1474	-	-	2	-	
	김재현	24	1993	1	-	4	-	
	김태은	18	1401	-	-	2	1	
	안동혁	10	621	1	-	1	-	
	안성빈	13	1095	-	1	1	-	
	안지호	27	2277	1	1	7	1	
	유지훈	10	873	-	-	2	-	
	이반	10	711	-	-	1	-	
	이병욱	1	44	-	-	1	-	
	전민광	31	2744	1	2	4	1	
	MF	고차원	10	600	1	-	-	1
		김재웅	24	1271	-	1	6	-
		김준태	17	1289	-	1	3	-
		김창욱	22	1620	-	1	5	-
		박성우	10	634	-	-	3	-
		윤성열	2	180	-	-	-	-
		조재완	28	1749	6	-	2	-
		최치원	19	1240	3	1	3	-
		최한솔	12	654	1	-	5	-
한지문		1	65	-	-	-	-	
FW	비엘키에비치	18	1108	3	1	1	-	
	에레라	11	365	1	-	1	-	
	원기중	6	319	-	-	2	-	
	유정환	13	662	-	1	-	-	
	이예찬	9	597	-	-	2	-	
	이현성	21	1583	1	1	2	-	
	전석훈	3	105	-	-	-	-	
	조용태	10	600	-	-	-	-	
	조찬호	23	1322	5	5	-	-	
	주민규	3	90	-	-	-	-	
탁우선	6	148	-	-	-	-		
페를레스	5	355	-	1	-	-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슈팅성공률%
	조재완	6	17	17.6%
	조찬호	5	12	29.4%
	최오백	4	16	12.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전진패스
	조찬호	5	15	109%
	최오백	3	51	239%
	전민광	2	10	548%

PASS	이름	패스시도	패스성공률%	상대진영 패스성공률%
	전민광	1170	69.8	49
	김영광	1084	48.2	37
	안지호	1031	77.1	59

TACKLE	이름	태클	태클성공	태클성공률%
	김태은	49	41%	83.7%
	안성빈	46	34%	73.9%
	김재현	39	31%	79.5%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

발행처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Opta/ProVision

편집 주식회사 별

디자인 디자인아이엠

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Opta/ProVision의 K리그 부가 기록의 기준에 따릅니다.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



K LEAGUE

2018 K LEAGUE **TECHNICAL REPORT**